

李青蓮

리청련의일두빅편하느지죄업스나또흔되문포고의붓그림을드지아니하노니형은
목과경거의투보흐를앗기지말라설파에공조의부치를청하야랑중필연을내여침음
슈유에향월하야일슈시를쓰니기시에왈

曲坊三十間東西 곱은교방삼십에동서를무르니

烟雨樓臺處處迷 연기와비에루딕곳곳이희미하도다

莫道無心花裏鳥 빗속의새무심하다니르지말라

變音更欲盡情啼 소리를변하야다시삿을다하야올고져하더라

공지보고그저스의점묘흐파시정의핍진흐를탄복하나오죽글밭기삿이잇서무슴탁

의흐를고이히녀여지삼보고또슈지의부치를청하야일슈시를화답하니기시에왈

芳草萋萋日已斜 방초는쳐쳐하고날이임의빛겉스니

碧桃樹下訪誰家 벽도나무아래누집을차젧고

江南歸客仙緣薄 강남의도라가는손이신선인연이박하야

只見錢塘不見花 다만전당호만보고빚은보지못하겟더라

슈지보고랑연이흔번음쳐알형의문장은데의밋칠배아니로다연이나첫귀밭작에벽

도슈하방주가라흐은누집을니름인고공지쇼왈우연이솜이로다차시홍랑이마만히

싱각하되공조의문장은더블배업스나그모음을다시시험하리라하고놈은술을기우

려공조를권하야왈이곳흔돌에취치아니코무엇하리오드르니향슈청루의물석이런

蘇子卿、
胡姬、通、
司馬長卿、
卓文君、
司馬相如

伯牙
鍾子期

하에유명하니우리에제월석을떠여잠간구경흐이엇더하노공지침음양구에왈스지
청루에놀미불미흔일이오또형과내동사슈지라열요흔곳에갓다가타인이목에피이
히빈죽두리건대후회잇슬가하노라슈지쇼왈형언이과도하도다고담에운하되론인
어쥬식지외라하니한나라소조경은충렬이빙설코흐나호회를갓가이하야동국을낫
코스마장경은문장이절세하나탁문군을스모하야봉황곡을알외였스니일로본죽식
폐상에정인군지업다하노라공지쇼왈불연하다스마상에문군을썬여내야독비흔을
넙고로변에매슈하니그쥬식에방탕흐이범부로호추흔죽명교에득죄흐이천추의기
인이될지라오죽장경의문장이당세에독보하고충성이인군을풍잔하야교화유풍이
축중에우되코고풍치괴상이후세에회황하니풍류쥬식의적은허물이그일흐를마리
오지못하야불과연성지해라형과우리문장이고인을당치못하고명망이당세에밋블
이업거늘이제고인의덕업은말하지안코다만그허물을호추고져하니엇지그르지아
니하리오호랑이초언을듣고심중에탄복왈공조를흔가풍류남조로알앗더니엇지도
학군조의지견을겸흔줄알앗스리오다시문왈그는그러하나고어에운하되스위지괴
자스라하니무엇을지괴라하느뇨공지쇼왈형이모름이아니나내삿을보고져흐이로
다사름이상친흐애능히그사름을아는재잇스죽지괴인가하노라슈지왈나느비록더
사름의모음을아나더사름은내모음을모르죽지도또흔지괴라홀쇼나공지쇼왈빅아
금을알원죽종조괴싱기느니사름이죄조를닥고문장이나니운중룡풍중호하며동성

상응하고 동고상구하야 엇지 모를 배잇스리오 슈지왈 그는 그러하나 제강속말하야 신
 의업슨 지오래니 왕왕궁도의 스관정을 부귀후닛는 재만흐니 형이 후널니 노라 부귀
 궁달에 종시여 일하야 유시 유종호자를 보았는냐 궁지쇼왈 고어에 운하되 빈천지교는
 불가망이 오조강지쳐는 불하당이 라하니 부귀궁달로 변역하면 경박조의 일이라 엇지
 이를 인연하야 제상을 의심하리오 슈지쇼왈 초언은 충후후디 갓갑도 다대는 본디 무지
 한 사름이라 네말에는 논재도나 무를 골나 깃드린다하니 신해인군을 섬기며 선비봉우
 를 사림에 후명망을 닦고 폐절을 직히여 도리로 합하는 자도 잇스며 후지조를 나타내고
 권도를 스양치아니하야 친함을 요구하는 자도 잇는니 형은 써엇더타하는뇨 궁지답왈
 사름의 출처형장을 엇지 경이 허의론하리오 성인도 권경이 잇는니 군신지제와 봉우지
 간에 다만 혼조각 북은 믿음상 조호를 따름이라 내또 후부거하는 선비라도 덕을 닦가 일
 홈이 스스로 빛나게 못하교 조박문장으로 군부의 거두심을 요구하니 엇지 규중처지 못
 그림을 무릅쓰고 스스로 중미 흠과 다르리오 일로 본즉 출처형장이 정대지 절하야 고인
 에 붓그림이 업는 재 몇 몇치리오 슈지미쇼하교 즉시 몸을 나려 왈 밤이 깊고 귀중실쉬도
 션하노도 리아니 라 무궁정화를 다시 명일로 괴약하노라 궁지 참아 떠날 뜻이 업서 슈지
 의 손을 잡고 월식을 다시 구경할시 슈지 홀연 침음하더니 글흔 슈를 읊흐니 그시에 왈

點點踈星耿耿河 덤덤흔석귀별과 경경흔하에
 綠窓深鎖碧桃花 푸르창에 깊히 벽도화를 잠겼더라

那識今宵看月客 엇지 오늘 밤에 들을 보는 손이

前身曾是月宮娥 전 몸이 일즉이 이 월궁의 계집인지 알았스랴

궁지 슈지의 외오는 글이 슈상하야 무슴 뜻이 잇는 줄 알고 못고져하더니 슈지 소매를 썬
 쳐 표연이 가니라 초시홍랑이 양공즈를 뒤하야 수어를 드르니 가히 그 지견을 알지라 지
 괴히 심하야 백년을 밧제 흠이 그르지아닐 듯 흠에 짐짓 일슈지를 지어 종적을 드러내고
 표연이 도라와서 즉시 장속을 못쳐 선명흔의 상과 무르녹은 단장으로 본석을 내야 등축
 을 도도고 련옥을 명하야 괴실에 가공즈를 청하니 초시 궁지 슈지를 보내고 여취여몽하
 더니 방중에 드러와 침상에 누어 슈지의 거동과 외오든 글을 생각하교 황연대각하야 혼
 자웃고 왈 내홍랑에게 속음이로다 하더니 창외에 기침소리나며 련옥이 우으며 고왈 슈
 인이 이제 도라와 공즈를 청하느이다 궁지 또 혼미쇼하교 옥을 따라 홍의 집에 나르니 홍
 랑이 임의 문에 의지하야 기드리가 웃고 마저 왈 첩의 도라옴이 더더여 공즈로 괴덤고
 초를 비상하오니 비록 불민하오나 량쇼월하에 재천구를 사피여 시쥬로 쇼견하시니 처
 하하느이다 궁지 왈 사름이 제상에 쳐흠에 취산봉별이 도시꿈이라 내압강당에 미인을
 언약 흠도 꿈이 오직 덤월하에 슈지를 허후 흠도 꿈이라 거대몽이 표탕 무덤하니 장쥬
 의 호덤덥과 호덤의 장쥬덥을 뒤라서 분별하리오 량인이다 쇼하교 승당좌당에 흥이 련
 용사 왈 첩이 창기의 천흠으로 류장화의 본석을 도망치 못하야 공즈를 노래로 언약하
 고 반야려 관에 변복하야 룹락하니 군즈의 용접하실 배아니로 대구구 소회는 미천바람

의는뜻이죽중에떠러지고티살의뜻천옥이광체를일치아니하야히서산명을일인
 에게의탁하고종고금슬로빅년을괴약고자함이라이제공제일인의중함을앗기지아
 니신즉첩이또흔십년청루의고심을변역지아니하야평성소원을일울가하는이다언
 미필에스괴쳐연하고안식이강개하늘공지집슈왈내비독호당흔남지나고서를늘
 고신의를드렸스니람화광덕의무정흔티도를본밭아오월비상의합원하는뜻을싱각
 지아니리오홍이샤왈공제천신을슈습고자하시니맛당히견마의정성을다하려니와
 아지못게라공제의형식이엇지더리초초하시며량위존당씩재사기를희롱하고반의
 로출추시는즐기심이게시니잇가공제답왈나는여람사람이라량친이구존하샤츨취
 독륙치아니시나집이한미하야망념으로공명을뜻두고황성에부거하더니중로에봉
 적하야형지를일코전진할방략이업는고로덤중에두류하다가압강당을구경코자갓
 다가량을맞나니츠역연분이라량은엇더흔사람이며성이무엇이노홍왈첩은본디강
 남사람이오성은스씨라첩이난지삼세에산동에도적이니러나부모를란중에일코던
 전표박하야청루에팔나니또흔명되괴박함이라성품이괴이하야범부에게히신할뜻
 이업서청루십년에허다열인하나지괴를불우하엿더니이제공제를뵈오니첩이비록
 상자의안목이업스나거의당제일인이되실지라일신을의탁하고천흔일음을신설코
 자하나이다비반을나와은근흔정화와번화흔담회록슈의원앙이츨풍을희롱하고단
 산의봉황이화명쌍쌍흔곳더라이에금금을베풀고원앙침을련하양운우를삼살식홍

史氏

李三郎

이라삼을버슴애유곳흔팔이드러나며일덤인혈이축하에완연하니동풍도해츨설에
 떠러진듯히상홍일이운간에소사난듯하늘공제경왈내홍량의얼골을보고그모음
 을보지못하얏스며그모음을아나그지조의락월함이더곳음을오허려밋지못하얏더
 니청루명기의량일흔몸으로홍규부녀의정정흔모음을직현술을알앗스리오하더라
 츄시홍량은절티가인이오공제는소년지스라임석풍정을엇지담연하리오충충흔루
 고와경경흔성하는리삼량의륙경이저름을흔하더니홍이침상에누어공제씩고왈공
 제년괴장성하시니고문갑데에던안흔실지라임의덩하신티잇는니잇가공제왈집이
 한미하고하도에잇는고로아죽덩흔함이업노라홍이쇼왈첩이츨곡의일인이잇스나
 공제그츨람함을척지아니시리잇가공제답왈내임의허심하얏스니소회를은휘치말
 라홍이쇼왈첩이공제의삼비주는먹을지언덩제번쌈은면하리니규목의그늘이두터
 운후갈류의의탁이번성하는니공제의요도호구를덩하심은천첩의복이라지금본쥬
 즈스윤공이일위쇼괴잇스니년방십륙제라월티화용이정정유한하야진짓군제의짜
 이라윤공이가셔를구하야지금까지덩함이업는니공제이번길에룡문에오르샤안람
 에데명하실술은첩이짐작하는니라쳐에비필을구치말으시고첩의말슴을싱각하쇼
 서공제덤두하더라아이오동방이괴빅하니홍량이효장을파하고거울을더하니봉용
 흔얼골에화괴돈싱하야미괴목단이츨풍에란기흔듯일야지간에화열흔용광이더욱
 아릿다운지라심중에차경차희하더라공제홍량드려왈내길이충충하니오래머르지

燕鷺亭

못홀지라명일은황성으로가고저하노라홍이추연월은녀의세세흔스정으로군즈의
 대스를그릇치지못홀지니맛당히형리를준비하려니와지명일등정하쇼서공저또홀
 써날뜻이업서수일후발헛홀시홍알공즈의헛식이니모초초하시니첩이비록집이간
 난하나헛자유신이라일습의복과다쇼은즈를더럽다말으쇼서또황성이여괴서천여
 리라일려단복으로또랑패홀가두리는니첩에게일기창뒤잇서죽히형리를숱할만하
 오니채를잡아뒤에쓰롬을허하쇼서공저허락하고등정홀시홍이비반을긋초아련유
 과창두를다리고소거를긋고심리력당에나와전송하랴하니그당즈일홀은연로당이
 라동비빅로서비연을취홀이오대로를림하야홍괴잇스니즈고로송기하느곳이라홍
 과공저당하에니르러서손을잡고당즈에오르니츠시는스월초순이라버들스이의씨
 쉼리소리는잔관하고시내가의뜻다온풀은쳐쳐하니심상홀헛기이라도흔을살오고
 창저흔어지려든하물며미인이옥랑을보내고옥랑이미인을리별홀이리오공즈와홍
 랑이초연상디하야막막히말이업더니련옥이비주를나옴애홍랑이개연이잔을들어
 공즈씨드리며일슈시를노래하니기시알

東飛白鷺西飛燕 빅로는동으로늘고제비는서으로늘아가니
 楊柳千絲復萬絲 약흔버들이일천실이오다시일만실이더라
 絲絲欲斷風情少 실마다흔어지고자하야풍정이적엇스니
 爲拂歌筵悵別離 위하야노래하느자리에떨쳐리별을섭섭히녀이더라

공저잔을마시고다시일비를부어홍랑을주며화답하니기시알

東飛白鷺西飛燕 빅로는동으로늘고제비는서으로늘아가니

楊柳青青拂渭城 양류는푸르고푸르러위성에떨쳐도다

生憎岐路分南北 평성에길이남북으로는홀을피워하노니

送客何如去客情 손을보내느정이가는손의정과엇더하뇨

홍이잔을받들며루쉬영영알첩의구구소회는공즈의거울긋치아시는배니다시말습
 할배아니오나평슈צוע적이천리의구름긋치는호이니유유흔압괴약이업습이아니로
 대인스의번복홀과취산의무당홀을엇지촉랑하리오하물며첩신이관부에미야직현
 뜻을괘박하느재만하느리두의일을알길이업스오나다만바라건대공즈는천금의몸
 을보중하사형리를삼가지고공명을힘쓰샤타일금의환향하시는날천첩을닛지말으
 쇼서공저또홀창연홀을이기지못하야홍의손을잡고위로알제간만식무비전당이
 인력으로못홀배니내랑으로더브러상복홀도전당이오금일상별홀도전당이
 니다시전당을니어부귀영화로환락히지낼이엇지전당에업는줄알니오잠간리별홀을과도
 이상심하야가는자의모음을요란케말라홍이이에창두를보아알네공즈를되셔원로
 에조심하라단여온후별로중상이잇스리라창뒤락하느니라공저니러당저에느리니
 홍이다시잔을들어알중초별후로운산이묘망하고어안이창망하니풍조우석과직관
 잔등에천첩의단장홀을싱각하쇼서공저무연부답하고라귀에올나동즈와창두를다

리고 석교를 건너 표연이가 거늘 홍이란 두를 의지 할야 형진을 바라보니 텃텃흔 먼 산은
 저 녀 벼를 띄여 푸르릿고 망망흔 들 빛은 점은 연기를 먹음어 널녓스니 혼듬 푸른라 귀의
 가는 곳을 보지 못하릿고 다만 수풀스이의 재 소리는 바람을 불으고 하늘가의 도라가는
 구름은 비귀운을 희롱하니 홍이라 삼을 자 조들어 열골을 그리오고 눈물흐름을 써 닦지
 못하더니 려옥이 비반을 거두어 도라감을 저축하니 홍이 흘길 업서 눈물을 썩리고 수리
 에 올라도라오니 라스시 양공저흥을 작별하코 황성으로 갈식경일 녀에 홍이 곁에 잇서
 귀덤에 든 죽고 등을 디하야 잠을 일우지 못하코 길에 오른 죽고 산류슈를 립하야 우량 초
 창흔 심스를 덩치 못하더니 심여 일만에 황성에 니르니 궁궐의 장려함과 시정의 열요함
 이 상국변화를 가히 알너라 귀관을 덩하야 형리를 안돈하코 수일을 쉬여 창두를 항쥬로
 보내고 저하야 처전을 싸쳐 일봉서를 다가 창두에게 붓치고 오량은 뜻을 주며 밤비도라
 감을 분부하니 창뒤하직하코 창연왈 쇼디 임의 귀관을 알앗스니 다 사랑조의 서간을 가
 저왕 리 할가하느이다 인하야 동조와 상별흔 후항쥬로 가니라 차설츠시 감남홍이 공조
 를 보내고 도라와 병드러다 널커러 문을 닷고 손을 보지아니하야 남루흔의 복과 썩무든
 열골에 지분을 단장치아니하더니 일일은 생각하되 내 임의 조스의 쇼교로 공조 썩중미
 하얏스니 공조는 유신흔 남지라 거의 닛지아닐지니 그러흔 죽윤쇼저는 나와 백년고락
 을 못치 할사름이라 내엇지몬저 정의로 두렵게아니리오하코 즉시 담장설복으로 부중
 에 드러가 조스 썩문후흔 대조시 쇼왈 랑이 병드러다하더니 엇지한가 이로 부를 찾느뇨

홍이 쇼왈 첩이 관부에 미인 품으로 부르시지아니시니 현알치 못하얏스나 금일은 구구
 소회잇서 감히 드러왔느이다 조시 왈로 위근 일공시 업고 정히 무료흔 때만 하랑을 불너
 쇼견코저하나 랑의 청병을 인연하야 못하얏더니 무슴 소회잇느뇨 홍왈 첩이 요스이 심
 복지질이 잇서 청루의 열요함이 괴롭스오니 원컨대 부중에 출입하야 당의 쇼저를 피
 서 침선녀 공을 비호고 쇠소 건줄을 밧들어 종용이 병을 묘섭 할가하느이다 조시 본디 홍
 의 위인이 단정정일하야 규중부녀의 풍되잇슴을 사랑하더니 대희하락하코 흥과 닉당
 에 드러가 쇼저를 불너 왈네고 저히잇슴을 사랑하더니 대희하락하코 흥과 닉당
 슬게 녀여너를 조차 종용이 높고 자하기 내 임의 허락하얏스니 이제 네 뜻이 엇다하뇨 쇼
 제심중에 생각하되 홍은 창기라 비록 저지잇슴을 드러스나 본식이 엇지 전혀 업스리오
 이제 동거함이 불가하나 부친이 임의 허하신 배라 엇지하리오 즉시 디왈 명대로하리오
 다 조시 대희하야 흥을 불너 자리를 주고 반일을 한담하다가 나가니 라홍이 쇼저의 압히
 나아가 왈 첩이 나이 어리고 비흔 배 업서 청루 주사의 방탕흔 만보고 규범너 축의례 절을
 듯지 못하코로 미양쇼저를 피서 교훈을 듯좁고 자하얏더니 이제 좌우에 두심을 허하시
 니 감사하야 이다 쇼제미 쇼부답하더라 일모 후홍이다 시드러움을 고하코 집에 도라가
 옥을 불너 집을 맞기고 익일다시 부중에 드러와 바로 쇼저의 침실에 니르니 쇼제바야 흐
 로 락녀 전을 보거늘 홍이 셔안압히나아가 문왈 쇼저의 보시는척이 무슴척이 니잇가 쇼
 제왈 락녀 전이 로라 홍이 문왈 첩이 드름에 락녀 전에 하얏스되 슈나라 래스느문왕의 안

堯舜 湯武 契唐 虞周 伊周 殷 旦己

히라덕이잇서중첩이규목을지어칭송하였다나아지못케라라시어거함을잘하야
 중첩이화목하니잇가중첩이섬김을잘하야라시감동하니잇가고연에하얏스되녀무
 미악이라입궁견뒤라하니부녀의두귀는조고로잇는배라일인의덕화로중첩의두심
 을감화함은첩이밋지안니이다쇼제츠퉘파들어흥을보며슈습하더니양구에알내드
 르니근원이막은죽흐름이조결하고형용이단정흔죽그림지바르니내몸을다그면
 비록만덕지방이라도가하형홀여든하물며일실지인이리오흥이쇼알주역에운하되
 운종룡풍종호라하니요순의덕화로도직설흔신해아닌죽엇지당우지치를하얏스
 며탕무의인의로도이주흔보필이아닌죽은주의화를엇지형하리오일로써보면래
 스의덕이비록크시나중첩이포스달귀의간새잇슨죽규목지화를나라내지못할가하
 는이다쇼제쇼알내드르니현불현은내게잇고형불형은하늘에잇스니근조는내게잇
 는도리를말하코하늘에잇는명운의론치아니하니중첩의착지못함을맛남은명이
 라라시덕을달글씩음이니엇지하리오흥이탄복하더라일로조차흥은쇼제의현속함
 을심복하코쇼제는흥의총명함을스랑하야정의일심하야안진죽자리를곳치하코누
 은죽버귀를련하야고금을의론하며문장을도로론하야그사괘이느짐을훈하더라일일
 은흥이집에나와련옥드려문왕황성간창뒤을뵈지내되오지아니하니엇지괴이치아
 니리오심란이란잔을의지하야버들을보라보며초창함을이괴지못하더니홀연일쌍
 청작이버들가지를스쳐란두에안져올거늘흥이괴이히녀여혼자말하야알내집에반

가운일이업스리니혹황성갓든창뒤도라오는가하더니말이못지못하야창뒤드러와
 공조의셔잔을드리니흥이망망이바다봉흔것을뵈며안부를무른대창뒤무스득
 달하심과귀관에안돈하신쇼식을일일이고하니흥이깃봄과초창함을이기지못하야
 편지를금금망망이보니그편지에알

汝南楊秀才 江南風月樓主人 玉蓮峰下 疎拙 白衣書

生 江南中熱關 青樓佳姬 長卿 綠林諸客 月下赤

心 楊州 橘 風情 效則 燕鷺亭 綠林諸客 月下赤

繩 緣分 壓江亭 風情 效則 燕鷺亭 綠林諸客 月下赤

意 高山流水 知己 漢津 成都 風流聲色

有 旅館寒燈 一 燕鷺亭 漢津 成都 風流聲色

寐 西湖錢塘 可憐 景概 曲房青樓 邀遊 眼前 無端

天 踽涼悵悵 消魂斷腸 蒼頭告歸 從此 山川 遼遠

魚 無憑 數行 綿綿情懷 從此 山川 遼遠

望 努力加餐 千萬保重 千萬自愛 千里遠客 戀戀

望 努力加餐 千萬保重 千萬自愛 千里遠客 戀戀

望 努力加餐 千萬保重 千萬自愛 千里遠客 戀戀

홍이 남필에 산연호루쉬옷깃을 적시며 다시 지삼보고 더욱 초창하야 락막 무언러니 창
두를 불너 십금을 상주고 타일다시 감을 분부호후몸을 니러 부중에 드러가라하더니 흘
연련옥이 보왈 문외에 소주창 뒤왔다하거늘 홍이 악연실식하니 엇지호곡 절인고 하회
를보라

데오회

경도희에 당자 풍파를 니르키고
전당호에 여러기성이 떠러진 뜻을올다

競渡戲蕩子起風波
錢塘湖諸妓泣落花

각설황조식방당호식지심으로 압강덩노름에 뜻을일우지 못하코 홍랑의도 망함을통
흔하나스 모호는모음이 압섬애통흔음은적고 무정음을근심하며오미일념에경경불
망하야위력으로 겁박지 못하코 부귀로달니고저하야 황금빅량과 처단빅필과 잡패일
습으로일봉서를다가홍에게보낼시 심복창두로 압령하야 홍랑청루에 드러니 홍이퍼
보고괴식이 참담블락하야 심중에 생각하되 황조식비록방탕하나 또흔흔 압흔재아니
라내일키기녀로고치안코도 망함을엇지노함이업스리오이제도로혀이긋치달님은
장그뜻이 갑흐니 내장초엇지도면하리오 또소항은 린음이라 그주는것을스양흔죽
도리아니오 밧고저흔죽내뜻이아니라 엇지면도호리오 침음반향에 회답알
杭州賤妓江南紅 蘇州相公閣下
항주천기강남홍은 소주상공합하씩글월을올니오니 첩이본디 심복지병이잇서약

石 석으로곳치지 못할지라 向日盛會 告 향일성회에 고치못하코도 治罪 라 음을이제치죄치아니시고도

로허상을주시니 賞 밧히그 밧자를배아님을아오나 蘇杭 兄弟之邑 賤妓 事上 소항은형데지음이라 천기의스상

호는도리부모와 다름이업거늘 그주심을물니 不孝莫大 천죽불회막대라 감히봉하야 두고황

恐待罪 公대죄하는이다

홍이 쓰기를못고 소주창두를주어 보낸후심중에 음음블락하야도 부중에 드러가쇼
저침실에니르니 쇼제맛춤창하에안자북은비단을들고 원앙을슈노아 짐착히홍의음
을쳐다지 못하거늘 홍이그만히서서보니 쇼제섬섬옥슈로금스를뽀아 발우의봄누에
경륜을도호는듯바람압희호덤이 씻송이러루는듯홍이 음음흔심시풀어 지고우음
을씩여왈 쇼제침선만알으시고 사름은모를시니 잇가 쇼제늘나도라 보고우어왈 정
히심심하기로 쇼견코자하더니 랑에게로졸하도 다량인이대 쇼하며 슈노흔것을보니
이에일쌍원앙이 씻아래안자조은모양이라 홍이다시괴식이 참담하야 원앙을그르
치며 단왈 더원앙이라하는새는나서 덩흔씩이잇서서로어즐업지아나하나 이제사름
의지령함으로금도만 못하야 제모음을제임의로 못하게되니 엇지가련치아니리오하
거늘 쇼제그연고를무른대 홍이 소주조스의괴기를 겁박하는 말을일일이 고하며루쉬
영영하거늘 쇼제추연위로왈 낭의지개는 임의아는바라 엇지평성을홀노늻고저하는

노홍이 추연왈첩은 드르니 봉황이 죽실이나니 면 먹지 아니하고 오동이 아니면 깃드리
 지아니하느나 이제 그 주림을 보고 쥐를 더지며 그 집업슴을 보고 가시덤불을 무르친즉
 엇지 괴라하리오 설파에 양호 빛이 잇거늘 쇼제치용사왈 내 엇지방의 뜻을 모로리
 오우연이 희롱함이 라연이나 낭의 괴식을 보니 심중에 무슴난 처호일이 잇는 듯하니 규
 중녀조의 룬할배아니나 모름직이 부친씨종용이고 하야 보리라 홍이 사례하더라
 시황조시홍의 편지를 보고 대노하야 생각하되 제불과 름읍천기로 나를 육고저하니
 엇지 법으로 속이지 못하리오 반향을 침음하다가 다시 쇼왈조고로 명기의 버릇이지
 를 가락하고 짐짓 교양하야 제 뜻을 직회는 데하나 필경은 저물과 위제에 버서나지 못하
 느니 내 엇지 묘한 방법이 업스리오 오월오일을 고디하야 정도 회제구를 준비하더라
 광음이 홀홀하야 오월초일이 되니 황조시윤조씨씨통하야 초스일압강덩에 비를 드고 소
 류하야 초오일조요에 전당호에 이를지니 강남홍과 기악을 거느려나오라 하엿거늘 윤
 조씨홍을 불너 황조씨의 편지를 뵈인대 홍이 막막무어하고 죽시집에 도라가련일부중
 에 드러가지아니하고 홀홀불락하야 생각하되 황조씨의 방탕무도함으로 일전편지에
 압강덩여혼아잇스니 금번노름에 불측흔계괴허소치안닐지라 내 임의 모면할방략이
 업스니 스괴를 보아 출하리만경청파에 몸을 조절이 하야 죽나니 만 못하도다 계교를 덩
 함애 믿음으로 하려 연하나 오직 양공조를 다시 보지 못하니 유유원원이 잇슬뿐아니
 라 청리스별에 일언이 업슴은 이 엇지 인정이 리오 석반을 파하고 루에 올라 부던을 보라

李誦仙 廣陵散

보며 허희탄식하니 츄시 반륜신월이 첨아에 걸녀 잇고 경경성한이 야식을 저촉하니 홍
 이란 잔을 의지하야 아연이 리적선의 원별리호곡도를 노리하고 장단왈인 잔츄곡이 능
 히 광릉산이 아니될소나하더라 다시 침실에 도라와 촉을도도고 치전을 내야 일봉서를
 써촉하에 저삼보고 저삼탄식하다가 침상에 의지하야 전전 불리하더니 동창이 밝거늘
 창두를 불너서 잔과 은조빅량을 주어 저삼부락하야 수이 단여음을 분부하며 루쉬영영
 하거늘 창뒤피이히 녀여위로 왈쇼디 맛당이 썰니 도라와 공조의 평안하신쇼식을 알으
 시게 할지니 낭조는 슬허말으쇼셔하고 황성으로 가니라 츄시황조씨부귀를 자랑코저
 괴구를 표창하야 오월초스일압강덩아래서 비를 타고 하향주로 갈시비십여척을 걸선하
 야 소주기악을 열두패로 썰아 선상에 셋고 북을 치며 말선홀시강구월음은 어룡을 놀내
 이고 금범은 대강을 덮혔스니 강두의 구경하는 재구름보다 더라 윤조씨황조씨의 음을 듯
 고홍을 부르니 홍이 즉시 부중에 드러가쇼져 침실에 나르내 쇼제 반겨왈 낭이 엇지 하야
 수일절적하노홍이 쇼왈 수일절적이 엇지 평성절적이 아니될줄알니 잇고 쇼제 놀나 무
 른대 홍왈 첩이 쇼져의 이홀하시느우덕을 닦스외와 종신을 좌우에 피서 견마지성을 다 할
 가하엿습더니 조물이 저희하야 금야리별이 괴한이 업사오니 북망쇼져는 라일근조를
 마즈샤종고금실로 영화를 누리실씨금일천첩의 먹음은 심스를 생각하쇼셔하고 쇼져
 의 손을 잡으며 루쉬여우하니 쇼제 비록 연고를 모르나 역시 눈물흐름을 써닷지 못하야
 왈 낭이 홍상불길지언을 입밖내 지아니하더니 금일지언은 엇지 그리 슈상하노홍이

다시 대답지 아니하고 의당에 나와서 썩되온대서 그루흔을 보고 칩왈 황조스의 금
 일노름은 로비비록 그 뜻을 아나 불행이 린음에 처하야 근청함을 팔시 처 못함이 니 낭도
 또 혼편협흔 모습 두지 말고 소의를 보아 주선하라 홍이샤 레하고 집에 나와 형장을 초
 락시해야 진옷에 병든 모양으로 단장치 아니하고 처연이 수리에 오를 식련음을 보며 소
 매로 낫을 그리고 눈물이 수리 아래 썩러 지거늘 옥이 감히 못지 못하고 심중에 의아하더
 라 초시윤조식니 당에 드러가 전당호에나 감을 말하니 쇼져왈 아사 강남홍이 또 혼전당
 호에가 노라 하직하며 괴식이 장피이하니 아지 못거니와 금일노름이 무슴연피잇는
 니 잇가지 침음왈 소주조식홍을 스모하야 계교로 겁탈코져 함인가 하노라 쇼제악연
 왈 홍이 죽으리로 소이다 홍은 녀 중렬협이라 탕조의 꺾박흔 배되지 아닐지니 무죄흔녀
 조로어복고 혼이 되게 말으쇼서 언필에 산연이 눈물이 흐르거늘 윤조식 무극히 말이 업
 시나 가더라 윤조식 죄우를 분부하야 본부기 악을 강두로 디령하라 하고 수리에 올라 전
 당호에 니르니 황조식 한회 필에 홍의 음을 못거늘 윤조식 쇼왈 홍이 비록 오나 근일신
 병이 잇서 장무료하더이다 황조식 쇼왈 그 병은 서성이 아니니 풍류명기의 남조를 낫
 고는 본식이 라 선성호호신 총후장조는 속이 러니와 서성은 못속일지니 금일연석에 슈
 단을 보쇼서 윤조식이 업서 웃고 디답지 아니하더라 어언간에 멀니 바라보니 적은 수
 리북편으로 오거늘 황조식란두에나 아안져서 세보니 랑기 창뒤 혼적은 수리를 모라 덩
 조아래 니르러 일위미인이 거중으로 나오니 이에 홍낭이라 호흔머리는 봄바람에 요란

하고 썩무든 얼굴은 가을 안기 붉은 들을 그린듯 담박하디도와 초취흔 모양이 룩슈의 부
 용이서 리를 썩고 미천바람의 버들개지 진흙에 썩러 진듯 탕조의 눈이 현황미란 흙을 썩
 닷지 못할지라 황조식 우으며 오름을 지축하니 홍이 덩상에 올라 추파를 흔녀 황조스의
 거동을 보니 오사 절각모를 두상에 빗기쓰고 강사학창의 를 압흔해쳐 걸쳐놓고 허리에
 야 쓰디를 느죽이 썩고 혼팔은 란간에 걸치고 혼손에 홍랍선을 흔들며 취안이 몽롱하야
 안졌스니 방탕흔 용지와 추패흔 괴상이 지척 청파에 보든 눈을 씻고 저 심흔 지라 홍이 마
 지 못하야 압히나 아가 문후 레 필에 항주 제기를 조차안조니 황조식 서저왈 소항은 린
 음이라 낭이 압강 덩연석을 파하지 아니하고 만히도 망하니 엇지스상하노도 리리오
 홍이 려임샤 왈 도망흔 죄는 신병을 인연함이니 거의 상공의 용서하실배오 당일 천첩의
 죄세가 지라 근조의 시류로 잔치하는 자리에 천흔 몸으로 참여하니 죄하는 이오 망녕도
 이다 스의 문장을 의문하니 죄들이 오창기라 하는 것이 미인 열지하야 형실을 죽히 의론
 할배업거늘 당돌이 구구흔 소견을 직히여 고집하니 죄셋이라 첩이 이세가 지근 죄잇거
 늘 상공의 인후 관대하심으로 방벽 슈령의 레모를 도라보샤 풍화로 빙성을 린하시고 레
 절로 일음을 혼도하샤 그 몸의 천흔을 불상이 녀이고 그 뜻이 그리지 아니함을 숨히샤도
 로 허상을 주시니 첩이 더욱 죽을 곳을 아지 못하는 이다 황조식 무연왈 괴왕은 물설하고
 내임의 강두에 수척 선을 미얏스니 반일 쇼견함을 스양치 말라 하고 윤조스 썩비에 오름
 을 청하니 초시 랑주조식 랑부기 악을 다리고 덩조에는 러 주중에 오르니 큰 강에 바람이

자고거울은 혼물결이 천리에 맑았는디 편편호벽구는 춤추는 자리에 설치고 열열호물 소리는 노래 소리와 같고 칠흠스니 비를 종류에 노아 비만이 랑자고 스죽이 달탕하니 황조식즐거운 흥을 이기지 못하야 술을련히 마시고 비전을 치며 노래하니 그 노래에 왈

携美人兮

아름다운 사람을 잇글미여

溯流光

흐르는 빛을 거슬넛도다

中流道遙兮

중류에 노닐미여

樂未央

즐김이 가온디 못되얏도다

황조식 노래를 못치고 흥을 도라보아 화답하라 하거늘 흥이 스양치아니하고 가왈

泛清波而競渡兮

맑은 물결에 떠다도아 건넌미여

岸楓兮汀有蘭

언덕에 단풍이 잇슴이여 물가에 란취잇도다

舟中大於楚國兮

비가온디가 초나라보다 큼이여

托忠臣之孤魂

충신의 외로운 혼을 의탁하얏도다

君莫競渡招孤魂兮

조네는 다도아 건너외로운 혼을 부르지말지어다

孤魂安

외로운 혼이 편안하도다

흥이가 필에 황조식 쇼왈 남은 강남사람이라 능히경도 희근 본을알쇼나 이때에 흥이 청 강을림하야 눈에 그득 흥풍광이 강개울을 흥심스를 돕는지라도 설할곳이 없더니 황조식의 무름을인하야 추연티왈 첩이드르니 넋적의 삼려대부는 초나라 충신이라 진충하

三閭大夫

懷王

屈三閭

야회왕을 섬기더니 회왕이 참소를 듣고 강우에 내야 쫓침에 삼려목은 머슴과 개결호뜻으로 흐린 세상에 처하야 지조를 보전치 못함을 설위하야 회사부를 짓고 돌을 안고 오월 오일에 강심에 빠져니 후인이 원통이 죽음을 불쌍이녀여 그날을 당호죽비를 강에 띄여 충혼을 건지라 하는 노름이라 연이나 만일 굴삼녀로 령혼이 잇는즉 청강어복에 조결이 타신하야 진세속연의 더러움을 면하니 도로 허쾌활안락 할지라 탕조범부의 뜻대를 회롱하고 물결을 희작여 건짐을 바라오이 때 황조식대취하야 엇지 흥의 말이 유의 흥을 짐작하리오이에 쇼왈 내성주를 피서 쇼년공명이 지렬에 처하야 부귀족하고 영해극하니 굴삼려의 초취불우흥을 조롱하야 좌수로 강산풍월을 읊고 우수로 절다가인을 잇설어 흥번우음에 춘풍이 동탕하고 흥번성내에 상설이니 러나 심지지욕파이 목지락을 막을 재업슬지라 엇지 적막하강중에 쇼슬흥충혼을 말하리오 제기를 명하야 풍류를 알외라하니 관현은 달탕하야 공중에 떠러지고 무슈는 완만하야 강풍에 번득이니 슈취흥장이 슈중에 쇼요하야 심리전당이 셋발을 일헛거늘 황조식다시대벽을 기우려 십여비를 마시고 취흥이 대발함에 흥낭의 엇기를 치며 쇼왈 인성벽년이 더류슈호하니 구구호심회를 엇지 족히 교계하리오 황여옥은 풍류지조오 강남 흥은 절다가인이라 저저가인이 이긋치아름다운 경개와 쾌활한 강산에 풍정으로 맛나니 엇지 하늘이 주신인연이아우를 호령하야 일척쇼션을 준비하얏다가 강중에 띄이고 쇼슈제기로 흥을 붓드려 선상

야 늬은 뼈를 거두 리 업스 오니 쇼네 원컨디 관력을 빌어 비골을 슈습하야 못어 잘가하느
 이다 즈식 그 뜻을 참혹히 녀여 죽시 관선수 심척을 주니 옥이 심여 일을 강두로 울며 찻되
 흔적도 업거늘 홀일 업서 집에 도라와 제련을 두 초아 강우에서 혼을 부르 고 흥의 님든의
 상과 패물을 강중에 더져 부르 지 지며 우니 오고 가는 형인들 파사 공어 뷔 뷔 눈물을 흘니
 지 아니하느 재업더 라 옥이 초 혼을 맞치고 도라 음애 적막 홀루 디에 티 설이 어 즐 업고 립
 락 홀 문항에 플 빛이 깃헛스 니 전일 풍류 자 최를 물을 곳이 업서 다 만문을 다치고 쥬야 호
 곡하 며 황성 간 창두의 회 환 홀을 기드 리 디라 차 설 양 공 지 항 쥬 창두를 돌너 보낸 후 그 관
 애 고 적 홀 심식 날로 더 하야 파 거 날을 고 디 하디 니 맛 출 쇼 덩애 변 방 급 퇴 잇서 과 일을 물
 니 니 오 히려 수 삭이 격 홀 지라 공 지 고 항을 생각 하 고 밤 마 다 잠을 일우 지 못하 디 니 일 일
 은 서 안을 의 지 하야 스 몽 비 몽 중 정 신이 표 당 하야 혼 곳에 니 르니 심 리 강 상애 흥 련 화 성
 기 하얏 거늘 홀 가 지를 섹 고 저 하 다 가 홀 연 광 풍이 대 작 하야 물 열이 니 러 나 며 섹이 썩 거
 저 강 중에 빠 지 니 앓 갑 고 놀 나 소리 처 세 다 르니 남 가 일 동 이 라 모 음애 상 셔 례 지 안 러 니
 수 일이 못되 야 홀 연 항 쥬 창 두 니 르 러 흥 의 서 간 을 드 리 거 늘 공 지 밧 비 예 혀 보 니 셔 애 왈
 賤妾江南紅 命道奇薄
 前첩강남홍은 명되 괴박하야 어려서 부모 교훈을 모르 고 자라 서 청루에 탁신하니 창
 妓 君子女 一片苦心 知己
 기의 천 홀이 오 군 조의 빈 배 라 오 직 일 편 고 심이 흥 번 지 괴 를 맞 나 형 산 박 옥 의 품 은
 鄧門白雪 和答 平生宿願 意

외공자 外公子 智襟 相照 江邊 解珮 效則 巾櫛 小星
 외공자를 맞나 흥금이 상 쇼 홀애 강변의 회 패 홀을 효 추 하 고 건 줄로 허 하 심애 쇼성의
 抱衾 君子 堅如金石 賤妾 所望 河海
 포금 홀을 괴 약 하야 군 조의 말 숨이 견 여 금 석 하 시 니 천 첩의 소망 이 하 히 또 치 김 습 더
 造物猜忌 神明沮獻 蘇州刺史蕩子 娼妓
 니 조 물 이 시 괴 하 고 신 명 이 저 희 하야 소 쥬 조 식 당 조 의 모 음 으 로 창 기 임 을 천 디 하 야
 利害 威勢 壓江亭 風波錢塘湖 五月五日天中
 리 해 로 달 너 며 위 세 로 겁 박 하야 압 강 덩 늬 우 풍 파 전 당 호 에 니 러 나 니 오 월 오 일 락 중
 節 競渡戲 賤妾 如縷殘命 籠中之鳥 網中之魚
 절에 경 도 희 로 밋 기 삼 아 천 첩 을 닐 고 고 저 하 니 여 루 잔 명 이 룡 중 지 도 오 망 중 지 어 라
 咫尺青波 渡海 望夫山頭 行人
 지척 청 파 에 도 희 하느 선 비 를 조 차 가 고 자 하 나 망 부 산 두 에 도 라 오 는 형 인 을 보 지 못
 魚腹孤魂 榮辱 白馬寒湖
 하 니 어 복 고 혼 이 영 욱 을 니 져 스 나 빅 마 한 조 에 늬 은 한 을 말 하 기 어 려 온 지 라 북 망 공
 子 賤妾 留念 青雲 錦衣 還鄉 故情 紀念
 즈는 천 첩 을 유 념 치 말 으 시 고 청 운 애 섹 을 두 사 금 의 로 환 향 하 시 는 날 고 정 을 괴 념 하
 紙錢 江上孤魂 冥府 發願 此生 未盡 後生
 샤 일 락 지 전 으 로 강 상 고 혼 을 위 로 하야 주 쇼 셔 첩 이 죽 은 후 알 음 이 업 슨 죽 말 홀 배 아
 一分精靈 泯滅 一百兩銀子 客中 趣味 此生 未盡 後生
 나 나 만 일 일 분 정 령 이 민 멸 차 아 닌 죽 명 부 에 발 원 하야 초 성 의 미 진 혼 인 연 을 후 성 으
 一 悠悠九原 戀戀 一分 死別
 로 괴 약 홀 가 하느 이 다 일 락 양 은 즈는 귀 중 의 취 미 를 도 으 사 기 리 가 는 사 름 으 로 하 야
 金悠悠九原에련련혼싱각을일분덜게하쇼셔붓대를잡음애흥중이억석하야성리
 死別 死別의 회포를 다하지 못하느이다

을덥혀차지나고척을보지못함애모든사공이서로도라보며왈사람이싸진즉다시슈
 상에쓰거늘이논거체업스니슈상치아니리오호더라량조시홀일업서사공과어부를
 끌어물목을직히여구하라호니사공과어귀고왈이호중에서찾지못할즉아래는조셔
 슈미논곳이라슈제그장급호야모래에못치여차즐길이업다호거늘량조셔더욱차악
 호야각각도라가니라차설윤쇼제홍을보내고싱각호되홍의성품과금일스기반드시
 구차투싱치아닐지라내더더브러지괴로사괴여구호지아니호죽의아니라호고구
 홀방략을싱각호더니유모설패드러오거늘설파는경성사람이라위인이령리치못호
 나모음이총직호고쇼저를조차부중에잇는지임의수년이라조연항슈사람을천호
 재만러니츠시쇼제설파를보고반겨왈내파에게청홀일이잇스니능히나를위호야쥬
 션홀소나설패왈로신이쇼저를위호야비록부탕도해라도스양치아닐것이니무습일
 이니잇고쇼제쇼왈내드르니강남사람이물에너어혹물속으로몸을곰초아수심리를
 hing호는재잇다호니파는혹알소나패첼음왈광구호면잇슬가호는이다쇼제왈일이급
 호니지금시각이지낸즉쓸디업스니파는밤비호나를청호라설패다시침음랑구에먼
 산을브라보며왈쇼저는구중부네라이러호사람을구호야쓸곳을로신이히득지못홀
 소이다쇼제아미를썩고여왈파는다만그사람을천거호고곡절을드르라설패바야호
 로몸을니러나가거늘쇼제싸라나오며신선부탁호니패덤두호고나간지슈유에일인
 을다리고드러와쇼저를보고왈맛춤그러호사람이남조는업고녀조를엇으니강호상

薛婆

孫三娘

浙江

에구슬키는사람이라물속으로능히오륙십리를hing호는고로닐건는재손삼낭이라호
 는이다쇼제그녀조임을신통이녀이여불너보니그녀지신장이팔척이오머리털이누
 르고얼골이검어겉헤움애비린내촉비호니쇼제놀나무러왈삼낭이능히물속으로몇
 리나hing호소나되왈로신이일즉절강어귀에서구슬을키다가니습을맛나서로싸화삼
 십여리를조차다니다가필경잡아엇기에메이고나올서저녀조슈에밀너다시수십여
 리를괴여물밖게나오니만일혹몸으로hing호죽찰팔십리는갈거시오무어슬가진즉겨
 우수십리를hing호는이다쇼제다시놀나탄왈삼랑을잠간쓸데잇스니랑이고슈고를앗
 기지아닐소나낭왈맛당히힘을다호리이다쇼제이에백금이십량을주며왈이거시
 적으나몬저정을표호는니성공호후다시중상호리라삼낭이대회호야그쓸곳을무른
 대쇼제죄우를물니고왈금일전당에소향량슈상공이경도희호실시반드시일키녀지
 슈중에싸질거시니낭이물속에그만히숨었다가즉시구호라물속으로괴여도망호되
 만일쇼슈사람의눈에쓰인즉대해잇슬거시니삼분조심호야성공호후내다시중상홀
 썩아니라할인지은이불쇼호리라삼낭이응락호고가거늘쇼제두세번부탁호야대스
 를루설치말라호니삼낭이이십량은조를가져집에두고밤비전당호물가가반일을
 안져경도희를구경호더니중시슈중에싸지는재업는지라석양이서산에지고일엽쇼
 션에소슈제기일키미인을붓드러올니거늘삼낭이싱각호되반드시곡절이잇슴이라
 호고슈중에뛰여드러가그만히괴여비밧헤업드렸더니아이오비가온디거문고소리

나거늘삼낭이귀를기우려만히듯더니홀연비가온디요란하며일위미인이비머리
 에서셔러지니삼낭이몸을소사두루쳐업고살곳치여순식간에륙척십리를헝야
 싱각하되인척이업고등에업은녀지살길이업는듯흔지라슈상에소사언덕을차자나
 오랴하더니물우에일척어선이오며비우에두낮어뵈손가온디작살을들고노래하며
 오거늘삼낭이웨여왈급흔사람을구하라흔대노래소리곳치며비를떨니저어니르거
 늘삼낭이그녀즈를업은채비가온디뉘여올나는려낫코보니운빈이훗히지고옥안이
 푸러일분싱되업는지라므른자리를구하야누이고저존의상을짜물니며오히려회싱
 흠을기드러더니그어뵈문왈엇더흔낭지이러흔익을맛나시노삼낭왈나는구슬키는
 사름으로맛춤더낭즈의짜짐을보고구하야왔더니아지못개라어부논어디로가는비
 뇨어뵈왈우리는고기잡는사람이라강호에싱장하야슈환당흔자를만해보앗스나이
 러흔거동은처음이라이곳에인개업스니엇지구하리오삼낭왈조곰기드려싱되잇슨
 죽다시의론하리라하고슈족을몬져보니회싱할가망이잇서슈유에정신을츠려눈을
 썩보고목속의소리로문왈로낭은엇더흔사람으로신어진목숨을살나는노삼낭이오
 히려이목이번거흠을념려하야왈낭즈는정신을슈습하야천천이드르소서어부를도
 라보아왈히임의저물고인개머니불가불슈중에류속할지라우리는흔데잇서무방하
 나더낭즈는규중약질로만스여성이라바람과이슬을쏘임이민망하니혹슈중에방풍
 흠제귀잇는뇨어뵈조각뎌므로의지할곳을하야주거늘비를중류에닷을주어야심흠

에양기어뵈뎌집밭개임의잠든듯하니삼낭이만히흥드려문왈낭지항슈즈소의쇼
 교윤쇼저를아는나흔이놀나니러안져못는곡절을무른대삼낭이이에윤쇼저의즈괴
 를구하야보내든말을일일이고하니흔이위연탄식하고눈물을흘녀왈나는별인이아
 니라이에항슈강낭흔이라그죽으라하든곡절을즈세말하니삼낭이대경왈연즉낭지
 데일방청루흔낭이니잇가흔왈로낭이엇지내일흠을아는뇨삼낭이다시경왈낭의차
 환이련옥이아니니잇가흔왈그러하다삼낭이악연하야흔의손을잡고왈로신은즉련
 옥의이피라미양낭즈의절개와일흠을칭찬하기우뢰又치듯고흔번뵈옵고져하나로
 신의싱이피이하야추흔모양을붓그러다만향안흔모음만근절하더니궁도에이곳치
 뵈오니이노하늘이지시하심이라하고더욱공경하거늘흔낭이역시놀나반겨각별친
 속하야서로위로하며누엇더니강련에들이지고야심흠에뎌집밭기양기어뵈서로만
 만히슈작하는소리나거늘삼낭이귀를기우려드르니일기왈분명이모르고엇지경솔
 이하리오일기왈내전일싱션을팔나하야항슈청루를지낼쉬루상에안즌녀지이녀즈
 와방불하더니이제로낭의슈작을드르니명령흔항슈데일방흔낭이로다일기우왈우
 리강호상에서여러히도적질하되일즉가속이업서근심하더니강낭흔은강낭명기라
 모흔고회를허송치못할지니우리들이합력하야로낭을죽인즉흔낫잔약흔녀즈를근
 심하리오하거늘삼낭이듣기를못고흔낭의귀에다이고만히고왈위디를면하야스
 디에드렛스니엇지금야에슈중인이덕국인줄알앗스리오흔이탄왈나는하늘이임의

죽이시는사람이라 할일업거니와로남은도피할모척을싱각하라삼낭왈로신이비록
 용힘이업스나죽히일인을당하려니와다만이인을티덕하기어려오니엇지면도흐리
 오홍이침음탕구에왈구차투성이죽음만못하나로남을위하야흔씩잇스니여쳐쳐
 할리라하고적연이잠든데하니슈유에한재부지불각에똥집을박차고달녀들거늘삼
 낭이놀나크게소리하고물로뛰여드니그한재삼낭을도라보지아니하고홍을저혀왈
 낭자의명이우리손에달렸스니순종흔죽살녀니와역흔죽죽으리라홍이링쇼하고비
 머리에나안즈며왈내년쇼녀조로풍류장에놀아로류장화로허다열인하니엇지순종
 처아나리오마는량인이일녀조를다듬은더욱슈치하는배라만일하니담당하야나
 선죽내맛당히허락하리라하대그중젊고장대흔한재손에작살을들고션두에나서며
 왈내맛당이낭조를구하리라언미필에뒤에셋든한재손의작살로그한자를썰너물에
 떠르침애손삼낭이물속에업드렸다가그한재떠러짐을보고그손의작살을빼아서들
 고죽중에뛰여올나죽중에잇는한자를마져썰너슈중에더지고비달줄을싼어언덕을
 차자가라하더니재벽조쉬밀어오며급흔바람이일엽쇼션을느는살곳치불어닷거늘
 홍랑이정신을치리지못하야죽중에업디여어티로가는곳을알지못하니삼낭이비록
 물에싱소치아니나비부리는법을아지못하는지라비가는티로가더니날이점점붉으
 며풍제더욱급하야비를것잡지못하니다만하늘이돌고싸이싸지는듯지척풍랑이되
 곳치니러서니삼낭이역시정신이아득하야홍을붓들고업디니반일만에바야흐로풍

세침식하고슈패덩하거늘홍이삼낭과정신을쳐러찬히숨혀보니망망대양에가을
 보지못할지라향방을몰나다만물결을싸라비가는티로헝하니멀니하늘가에일덤
 청산이보이거늘그곳을향하야비를저어또반일을헝흠애비로소언덕이잇고우에갈
 대수풀이욱어저수삼촌가이은우이되거늘비를다히고수풀을헛쳐문을두다리일
 인이낮이검고눈이갑흐며싱소흔의관과서어흔성음으로당황이나와슈상이보고문
 왈엇더흔사람이뉘집을찾노쇼삼낭왈우리는강남사람으로풍도에표박하야이곳에
 니르니이곳디명이무어시쇼그사람이대경왈이곳은남방나라히오나라일흔은탈국
 이니강남셔륙로삼만여리오슈로철만리라하거늘삼낭왈우리만스여싱으로갈
 곳을모르니일야류숙하고갈가하노라주인이허락하고즉시일간직실을명하야주니
 갈남셔로침아를덥고돌을싸하벽을하고대자리와플방석이일시머물기어려오나날
 이임의저문지라부득이류숙할시주인이척반을나아오니큰열미로밥을짓고비린
 고기와거촌나물이먹을길이업서삼랑은오허려료기하나홍은먹지못하고정신이흔
 혼하야누엇스니루습흔괴운과흔중흔바람이잠을일우지못할너라홍이삼낭다려왈
 나를인연하야무단이표박흔종적이되니이곳우일시머지못할지라나는죽음이원
 동치아니나로남은살아고국에도라갈도리를싱각하라삼낭이개연왈평일로신이스
 모하든정성으로오늘시험하야스싱고락을맛당히곳하리니이곳에산이높고물이
 맑아반드시도관승당이잇슬지라명일다시차자복이를홀가하하이다량인이안져밤

을지내고익일쥬인드려문왈이근처에혹승리도식잇느냐쥬인왈우리곳에본디도스승리노업고산중에혹쳐시잇스나운유종적이왕리무상하니이다량인이쥬인을자별하고죽장을집고산길을차자방향업시가더니흐곳에너르니골이깊고길이업거늘바회우에안져드리를실시홀연흐줄기시내산머리로노려오는지라홍이손을써스며물을움기여마시고삼낭을보아왈이물에이상향내축비하니우리근원을차자봄이엇더하노삼낭이응락하고물을써라을나갈시수빅여보를헝흙애흐동학이잇고동중에드러가니뵈다온나무와괴이흐뵈이경개절승하야남방의비습흔괴운이업거늘홍이삼낭을보아왈내고국을떠는지오래지아니하니남중풍도에괴운이저상하더니금이곳은별유던디비인간이로다서로말하며수집보를더헝하니흐구비시내잇고시내우에일좌반석이노엿는디석상에일기도동이류슈를림하야차를다리거늘홍이나아가동조드려문왈우리는길일은사람이라잠간지로함이엇더흐고동적왈이곳에다른길이업고일죽형인이드러오지아니하거늘그디는엇더흐사람으로왔는노홍이밋쳐답지못하야일위도식홍안빅발에풍되표일하야머리에갈건을쓰고손에빅우션을들고우음을써여대수플로나오거늘홍이나아가례필에살어고왈이역사람이풍도에표박하야갈곳을아지못하오니선징은심도를지시하쇼셔도식숙시량구에동조를명하야인도하라고돌쳐대수플로드러가거늘홍과삼낭이동조를싸라두어거름을헝하니수간초당이극히정쇄흔디일쌍빅학은슬그늘에조을고수기사슴은돌길에비회

하니홍이평성을열요변화흔디자라청정흔선경을처음봄애흥금이상쾌하고정신이쇄락하야거의진제정연을니즐너라도식량인을명하야당에오르라하며왈나는산야늑으니라허물치말라홍이삼낭과당에을나방에드러가좌우에시립하니도식왈그디의모양을보니못지아너도중국인물을알지라이곳에인물이업고풍속이금슈와다르지아너먼디사람이발디딜곳이업슬지라아즉로부에게머드러고국에도라갈괴회를기드리라홍이빅비사례하라고도스의도호를무른대도식쇼왈로부는운유종적이라무슴도회잇스리오닐컨는재빅운도스라하노라홍이조초로안심함이장편하더라차설윤쇼제삼낭을보내고조민이안젼더니윤조서전당호도로와홍의죽음을말하니쇼제대경차악하야함루왈그죽음이불상홀뿐이아니라그위인이앗갑도소이다일변심중에삼낭의회보들은근이고디하더니맛츨리쇼식이업고슈일후조시니당에드러와쇼져를디하야왈홍의용모위인이엇지슈중원흔이될줄알앗스리오쇼제경왈홍의신례를건지니잇가지와돌에상흔비되야남녀로쇼를분간치못하고인하야그날저녀조슈에밀니여간곳이업다하니다만그들됨이괴하니홍의신례인가하노라쇼제심중에더욱경통하더라각설련육이홍의죽음을듯고말을굴으며통곡하고관문을두드려왈쇼녀는강남홍의종련육이라홍도부모친척이업고쇼녀도부모친척이업서고단흔신세노쥬서로의지하야형데골육에다름이업더니홍이이제무죄하강중원흔이되

야 늬은 씨를 거두리 업스오니 쇼네원컨디 관력을 빌어 빅골을 슈습하야 못어 줄가 하느
 이다 저식 그 뜻을 참혹히 녀여 죽시 관선수 십척을 주니 옥이 십여 일을 강두로 올며 찻되
 혼저도 업거늘 홀일업서 집에 도라와 제연을 두초아 강우에서 혼을 부르 고 흥의 님든의
 상과 패물을 강중에 더져 부르 지지며 우니 오고 가는 형인들과 사공어 뷔 뷔 눈물을 흘니
 지아니 하느 재업더라 옥이 초혼을 맞치고 도라오며 애적 막 혼루디 에 티슬이 어 즐업고 링
 락 홀문항에 폴빛이 김헛스니 전일 풍류자 최를 물을 곳이 업서 다 만문을 다치고 쥬야 호
 곡하며 황성간 창두의 회 환함을 기드리더라 차설양공지 항쥬창두를 들너 보낸 후 귀관
 에 고적 홀심식 날로 더하야 과거 날을 고되 하디니 맛츨쇼딩에 변방금뵈잇서 과일을 물
 니니 오히려 수삭이 격홀지라 공적고 항을 생각하 고 밤마다 잠을 일우지 못하디니 일일
 은셔 안을 의지하야 스몽비몽중정신이 표탕하야 혼곳에 니르니 심리 강상에 흥련해성
 기하얏거늘 홀가지를 색고저하다가 홀연 광풍이 대작하야 물결이 니러나며 뜻이 썩거
 저 강중에 빠지니 앓갑고 놀나 소리 쳐서 다르니 남가 일몽이라 모음에 상셔 롭지 안터니
 수일이 못되야 홀연 항쥬창두니 르러 흥의 셔간을 드리거늘 공지 밧비 예허보니 셔에 왈
 천첩강남홍은 명되고 박하야 어려서 부모 교훈을 모르고 자라 서 청루에 락신하니 창
 기의 천함이 오군조의 빈 배라 오직 일편고심이 흥번지기를 만나 형산박옥의 품은
 갑을 의론하 고 영문 박설의 높흔 소리를 화답하야 평성 숙원을 일워 볼가 하얏더니 의

외공자 外公子 智襟 相照 江邊 解珮 效則 巾櫛 小星
 외공자를 만나 흥금이 상쥬함에 강변의 회패함을 효측하 고 건줄로 허하심에 쇼성의
 포금함을 괴약하야 군조의 말슴이 견여 금석하셔니 천첩의 소망이 하히 고 처김습더
 니 조물이 시괴하 고 신명이 저희하야 소쥬조식랑조의 모음으로 창기임을 천디하야
 리해로 달너며 위세로 겁박하야 압강덩늬우 풍파전당호에 니러나니 오월오일련중
 절에 경도희로 밋기 삼아 천첩을 닐고 고저하니 여루잔명이 룡중지도 오망중지어라
 지척청과에 도희하느 선비를 조차가 고자하나 망부산두에 도라오는 형인을 보지 못
 하니 어복고 혼이 영욕을 니젓스나 백마한쇼에 늬은 한을 말하 기어려온지라 북망공
 자는 천첩을 유념치 말으 시고 청운에 뜻을 두샤 금의로 환향하 시노 날고 정을 괴념하
 샤일릭 지전으로 강상고 혼을 위로하야 주쇼셔 첩이 죽은 후 알음이 업스 죽말할 배아
 나나 만일 일분정령이 민멸치아 닐죽 명부에 발원하야 초성의 미진혼인연을 후성으
 로 괴약할가 하느 이다 일백량은 조는 귀중의 취미를 도으샤 기리가 는 사름으로 하야
 금유유구원에 련련혼싱각을 일분덜개하쇼셔 붓대를 잡음에 흥중이 억척하야 성리
 사별의 회포를 다하 지 못하느 이다

이 때 양공 지편지를 보고 악연실석하야서 안을 치며 두 줄기 눈물이 옷깃을 적셔 왈 홍낭
 이 죽단말가다 시편지를 보고 여취여몽하야 창두드려어는 날씨남을 무른대 창뒤왈 초
 스일등정하니이다 공지왈 소주저서어는 날온다 하더노 창뒤디왈 오일와서 전당호에
 경도희를 혼다 하더이다 공지 탄왈 의라 홍이 임의 죽엇도다 서안을 치며 눈물을 금치
 못하야 심중에 생각하되 홍은 절디 혼국석이오 무쌍 혼인물이라 조물이 식괴고도다 또
 생각왈 홍의던성이니모강하야 열협지풍이잇스나 그번화혼괴상과아름다운얼골이
 슈중원혼이되지아닐지라 필연함이로다 상두의취전을빠혀답장을쓰라다가다시붓
 을더지며 탄왈 홍이정녕이죽엇도다 내압강당시에원앙비거절화총이라 혼글귀엇지
 언츠미아니리오 연즉내비록답장을하느니보리오 하더니 또 탄왈 그러하나 내심중에
 싸인정회를어는곳에도설하며 창두를츄아엇지그저돌너보내리오다시붓을잡아수
 핑을쓰니답장에왈

紅娘 紅娘 아나를속임이아니나 그맛남이엇지그리괴이하고셔남이엇지그리덧업스며

그친흠이엇지그리다정하고그보림이엇지그리무심하며그스랑흠이엇지그리정

중중 重중 重중 그니즘이엇지그리용이하노만일속임이아닌즉내꿈이로다네번화혼괴상

과영발흐풍류로혈마쇼슬혼강중에적막고혼이되며네총명혼저질과혜힐혼성품

으로혈마우량혼야디에츄혹혼원귀되리오홍낭아꿈이나츄이나창두의말과편지
 를본즉츄인듯하나네얼골과모양을상상흔즉그러홀리업슬지니그꿈과츄을늬드
 러무르며늬드러질덩하리오이제천리남북에성스를아득모르니이내너를저버
 림이오일시협괴로빅년괴약을초개又치니젓슨즉이내너를저버림이라금일루
 쉬엇지등도저의호식지심이리오빅아의거문괴업슴을슬허하노라창뒤고귀흠애
 수항글월을붓치노니홍낭아네능히살아이답장을볼소나
 공저쓰기를못고창두를주어밤비도라가다시쇼식을알게하라하니창뒤하직하고창
 황이가나라쳐시련옥이무주공사에낮이면눈물로보고밤이면외로운등잔을디하
 야잠을일우지못하며창두를고디하되쇼식이업는지라일일은심란무료하야경황업
 시문전에섯더니교방대로거매열요하야쳐쳐에풍류소리의구이딜랑흔대적적흔
 데일방은문전이료료하야우물우에벽도화논뜻이진하고열미열어오작이짓줍거늘
 옥이쳐탕흔심스를이괴지못하야석양을디하야실성동곡하더니황성갓든창뒤망망
 이도라움을보고반기며슬허하야사에업다저괴식흔대창뒤바야흐로공저의말을싱
 각하고방성대곡하며옥을붓드러일희되며곡절을물은대옥이오열흔소리로세세이
 말하니창뒤희중으로일봉서를내어왈공저의서간이라장쳐어디로전하리오옥이탄

踽涼 夜臺 慘酷 冤鬼 紅娘 蒼頭

一時俠氣 百年 千里南北 生死 想像

鄧都子 好色之心 草芥 伯牙 蒼頭告歸 今日淚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數行 紅娘

왈우리낭지평성에지괴업고오작양공즈일인이라엇지그편지를가져흔령을위로치
 아니리오상략을비설하고편지를상두에노코창두와련육이일장대곡흔후그서간을
 심심장지하나라윤쇼제홍의죽음을참혹히덕여육과창두의의탁업슴을싱각하고부
 중에슈습하야두엇더니맛출조당이윤즈스를병부상셔로부르시니대개윤공의치적
 이일흔나련하의데일됨을위하심이라윤공이즉시치형등정홀시련육이올며쇼셔에
 게긋치감을청하니쇼제측연허락흔대육과창뒤집에나와약간형장을슈습하야쇼셔
 를피셔황성으로가니라차설양공저홍의스심을알고져하야장충동즈를항주에보내
 고져하더니일일은항주창뒤일기소복흔녀즈를다리고니르거늘즈세보니이에련육
 이라쳐초흔기상과우량흔모양으로게하에서공즈를잠간우러러보고소매로얼골을
 그리며실성오열하니공저또흔눈물을금치못하야왈네모양을보니창상호겁을불문
 가지라내긋하야못고져아니하나전후곡절을대강말하라우이목머인소리로말을일
 우지못하며홍이공즈를보내고창병하든말과윤쇼져를사피여지괴허심하든말과황
 즈스의변을맛나빅골을강중에거두지못할말을일일이교하니공저허희류레왈참의
 참의로다내더를저보림이라하고다시문왈네엇지경성에왔느뇨육왈윤쇼제천비의
 의지업슴을측연이보샤거두어오시니이다공저청과에싱각하되윤쇼제규중녀즈로
 신의를저버리지아니함이이긋흐니죽히홍낭의붉음을알니로다하더라공저다시육
 과창두를보아왈내엇지네쥬인이업슴으로니즈리오마는아즉슈습할힘이업스니윤

소저씩락신하야내차즘을기드리라육과창뒤올며샤례하더라광음이홀홀하야수삭
 이지냄애런지변방을평당하시고다시스방다스를모으샤과거를뵈이실씩연영면에
 친림하샤척문으로무르시니장육에모인선벽구름긋흐니그어제에왈
 황제문왈曰自古治國道不一
 도로다스림이그리희호호호한당이후는엇지하야그리분분요란하노짐이재
 卽位 眇然一身 萬民臨 戰戰兢兢
 로즉위하야묘연흔일신으로만민을림함에전전공공하야그다스릴도를아지못하
 노라금일다시키고셔를읽고평일홍중에강마함이잇슬지라각각숨기지말고직언극
 諫 朕 各各 直言極
 간하야짐의허물을김게하라

양공지계하에부복하야경각간에수천언을알외니대강왈

신이듯스오니남군의련하다스리는되맛당히하늘을법밧을지라쥬역에왈윤지이
 풍雨 鼓之以雷霆 又曰四時行焉 萬物成焉
 풍우하고고지이뢰덩이라하며우왈스시형언하며만물이성언이라하니하늘이만
 物 化育 風雨 潤澤 好生之德 滯鬱 萬物 生長
 물을화육하샤풍우로윤택하며호싱지덕을느리오실썩아니라반드시뢰덩으로호
 令 驚動 威嚴 四時 運行 滯鬱 萬物 生長
 령하샤경동하는위엄이잇스후스시의운형홀이체을치아니하고만물이싱장하며
 疏通 春夏 生長 秋冬 肅殺 闔闢 造化
 소통하느니연고로춘하로싱장하고추동으로숙살함은그기운을합벽하야쇼화를

베풀고저흠이라 고지성왕은 이를 효측하고로 혜택인정은 춘하의 성장 흠을 모방하
古之聖王 效則 惠澤仁政 春夏生長 模倣
 고법령형정은 추동의 속살흠을 본받으니 일장일이 고일성일살하야 회강단흠
法令刑政 秋冬肅殺 教化由是而成焉 威令由是而行焉 惠澤仁政 由是而出焉
 이잇슨후교해유시이성언고 위령이유시이행언하며 혜택인정이유시이출언하
紀綱風俗 由是而立焉 好生之德 撫摩蒼生 肅殺之威 由是而發焉
 고기강풍속이유시이입언하느니 만일호성지덕으로 무마창성하고 속살지위로 일
分懲厲 四時 萬物 生長 教化
 분징녀치아난죽이느하늘이스시업습이라 만물이엇지성장하며 교화를엇지일우
古人 一國 一身 人君 臣下 手足 平居
 리오연고로고인이일국을일신에비유하니 인군은모음이오 신하는슈족이라 평거
無事 安逸 手足 運動 懈怠 倉卒患難 淸淨 淸淨 振刷
 무스에모음이안일할즉 슈족의운동함이히티하고창졸환난에모음을청정할즉슈
足 周旋 捷利 由此觀之則天下萬事安逸 叢脞 淸淨 振刷
 족의주션함이첩리하느니 유추관지즉던하만시안일할디 총화하고 청정할디 진쇄
古之聖君 天道 法 人事 先後緩急
 흠이라이러흠으로고지성군이우호로던도를법밧고아래로인스를속허안일흠을
振刷 陛下 道 忠言嘉謨文具 欽仰 先後緩急
 근심하고진쇄흠을싱각하느이다이제폐해그도를듯고저하사션후완급을무르시
大哉 王言 治國 道緩急 忠言嘉謨文具 欽仰 先後緩急
 니대지라왕언이여대개치국하느니 완급을모른즉충언가되문구로도라가고션후
倒錯 經綸得失 實效 堯舜之治 欽仰 先後緩急
 를도착흔즉경륜득실이실회업느니연고로요순지치를님군마다 흠양하나일우지
稷契之事 臣下 思慕 行 先後緩急
 못하고직설지스를신하마다스모하나행흔재적음은다름아나라그션후완급을아

지못흠이라신은써하되 금일조명의 급무를말할진대몬저기강을세울지니신이청
臣 今朝廷 急務 紀綱
 권대고스로징거하리이다 당우이전은덕으로교화하고하은이후는공으로다스리
王道 秦 德 夏殷以後 功 漢 唐 宋 以後 人氣 降殺
 니이니론왕되오진나라는힘으로니러나고힘으로직희니이니론패도오한나라는
勦業 守成 王霸并用 晉 唐 失於浮文 大
 지혜로창업하고지혜로슈성하니이니론왕패병용함이오진당은실이부문하고매
宋 病於糟粕 或王或霸 得失 相半 唐 虞 以前 風俗 淳朴
 송은병어조박하니이후는왕후패하야득실이상반함이라 당우이전은풍속이순박
德 教化 夏殷以後 人文 聰明 功 漢 唐 宋 以後 人氣 降殺
 흥고로덕으로교화하고하은이후는인문이충명하고로공으로다스리고전국이리
秦 風氣 強盛 漢 唐 宋 以後 人氣 降殺
 로진나라에밧쳐는풍기강성하고로힘으로니러나고한당송이후는인기강쇠하야
純雜 相半 經權 王道
 순잡이상반하니경권을짐작하야지혜로써다스림이라왕도는그니러남이더되고
長遠 霸道 王道
 로그누림이장원하고패도는그니러남이속하고로패함이급하며왕도는그나종
愚迷 霸道 詭亂 天地 運數 古今 不同 國家 治亂
 이우미하고패도는그나종이괴란하니이런디운쉬고금이부동하며 국가치란이
規模 大槪 王道 經法 霸道 權術 經權 得中 聖人
 규되다름이라 대개왕도는경법이오패도는권술이니경권이득중할즉이또한성인
之道 臣 王 霸 并用 後世 治國 不易 之法 近日 迂怪 議論
 지되라신은써하되 왕패병용은후세치국하느니불역지법이어늘근일오괴흔의론이
出 霸王 自求 堯舜 之治 實效 議論
 출패행왕흠을즈구하야그말씀을드른즉 요순지치에갓가오나그실효를의론할즉

唐宋之治不及 蒼古者 平城干戚 大談 朝三暮
 當송지치를불급하는니그창고흔자는평성간척을대담하고지혜잇는자는조삼모
 四를조랑하야묘당으로말할진대직척이크고레미중함으로세무를임의못지아니
 是 昇平 廟堂 安逸 職責 體貌重 細務 臺閣 遵行 一語 是
 非忠逆 時勢 刺史守令 得失 較計 官爵 階梯 議論 人材 賢否
 일득에주견이업스며조소슈령으로말할진대관작의계데를의론하고인지의현부
 不問 康俸 豐薄 得失 較計 民生休戚 例事 士習
 를불문하며음봉의풍박으로득실을교계하고민심휴척을레소로알며스습으로말
 할진대고궁독서함을조롱하고요형진취함을희기하며졸흔자는비탄궁녀에귀운
 沮傷 激 自暴自棄 意思拂鬱 風俗 倫氣
 이저상하고격흔자는조포조기하야의식불을하며풍속으로말할진대룬기문치지
 廉耻道傷 奢侈之習 困窮之歎 朝不慮夕 長遠 邊務
 고렴치도상하야사치습과곤궁지단이조불려하야장원흔싱각이업고변무로
 四夷八蠻 王化 諸將軍卒 昇平 撫摩 教化
 말흔진대스이팔만이왕화를모르고제장군졸이승평함을누려임의무마하는교화
 經綸 虛疎 財貨 民間 取歛 不絕 國中
 업고또흔경륜이허소하며지화로말할진대민간에취렴하야원망이부절하고국중
 日用 財力 不足 倉廩 空虛 儲蓄 陛下深宮 處
 의일용하는지력이부족하며창음이공허하고저축함이업스니폐해심궁에처하사
 神聖睿智 左右 輔導 天下安危 前後
 비록신성예지하사나좌우의보도함이아닌죽엇지런하안위를알으시리잇가전후

之人 四海之富 萬乘之貴 廣廈 安逸 萬人之
 지인이다만스히지부와만승지기를말함하야광하세전의안일함을돕습고만인지
 上 極難 諫 龍樓 曉漏 丙枕 轉輾 別般經綸
 상의극난함을간할재업스니비록룡루에고요이처하사호루의병침이던전하사며
 聰明所到 民憂國計 贊襄 振刷 嗚呼 四海之廣 萬乘之重
 총명소도에민우국계를성각하사나하늘이붉은죽또다시전과호사별반경륜이
 業슬지니이는좌우의찬양함이업서진쇄치못함이라오회라스히지광과만승지중
 疾苦休戚 陛下 威福 人君 紀律 治國之綱領
 으로그질고휴척이폐하되달년거늘폐해엇지모음을한만이두샤용단함이업스리
 網領 惟辟 作威作福 威福 人君 紀律 治國之綱領
 잇가홍범에왈유벽이사작위작복이라하니위복은인군의과를이오치국지강령이
 紀綱 紀綱 萬民 紀綱 陛下 衆目 謂 朝廷 天下
 이과강을그물에비함은그벼리를든죽중목이쓰라들님을위함이니조명은현하의
 紀綱 萬民 紀綱 陛下 衆目 謂 朝廷 天下
 紀綱이오님군은만민의과강이라폐해런하를다스리라하신즉문져조명의과강을
 萬民 教化 紀綱 陛下 衆目 謂 朝廷 天下
 세우시고만민을교화코저하신즉문져님군의과강을일치말으쇼셔세간의장슈된
 百萬軍 陣 臨 敵 陛下 億兆蒼生 兵權
 재백만군을거느려진을림하야덕을디홀시반드시상벌을주장하고병권을오로지
 三軍 掌握 成功 陛下 億兆蒼生 兵權
 하야삼군을장악에너흔후성공하는니이제폐해억조창성을거느려스히를다스리
 生殺之權 驚動之威 經綸 四海
 라하시며성살지권과경동지위를붉히못하사일이모음과어리며경륜이싱각과상

좌 紀綱 좌하시니 風俗 기강을 엿지세우며 董督 풍속을 엿지 못치며 弊瘼 군하를 엿지 동독하며 君臣百僚故事 폐막을 엿지
 구하리 잇가 伏惟我太祖皇帝開國以後 복유아래 조황제미국이 후로 폐하되 昇平日久 밋쳐 승평일구하며 理 군신벽퇴고
 를 지회고 前例 전례를 준행하야 自然 자연스름이 안일하고 安逸 성각이 히리 解怠 흠은 셋셋하리라 精神 비견
 대집을 經營 경영할 식 北山 북산의 돌을 취하며 南山 남산의 材木 지목을 구하야 制度 제도를 생각하 고 精神 정신을
 焦勞 堅固 초로하야 그 지음이 견고하야 子孫 자손이 입쳐하야 다 恨歎 만편 흠만 알고 傾覆之患 슈고 흠은 모르느고
 牆垣 頹圯 棟樑 로 장원이 퇴비하 고 摧折 동량이 최절흔 즉 처음은 근심하 고 나 恨歎 종은 혼란하야 傾覆之患 경복지환을
 當 當하는 재잇느니 그 子孫 자손된 재만 일내 乃父乃祖 부내 조의 勳建 창건하든 百年深 무음의 薄水 빅분지일을 두어 振 진
 刷 刷흔 즉 엿지 이 臣 디 念慮 경에 이르리 오 陛下 폐해이 제 天下 련하듯 戰戰兢兢 치근 집을 세 百年深 구년심하야 傾頹 그 경 퇴흠
 을 優禮多士 념려치아니 一得之見 하신 즉 신이 감히 戰戰兢兢 말슴 할 배아니 오 戰戰兢兢 나 薄水 전전공공하야 然 박빙을 밟는 듯하
 신 細瑣 우레 다스 時急 를 뒤하야 經綸 일득지 寸管尺紙 견을 무르시니 定式文法 엿지 例答 덩식 臣 문법으로 然 레 臣 답하리 잇고 然 연이
 나 細瑣 세 時急 쇠흔 經綸 조목과 寸管尺紙 시급흔 倉卒 경륜은 倉卒 촌관 臣 척지 臣 로 臣 창출에 臣 다 臣 못할지라 臣 만일 臣 신의 臣 말이 臣 그르
 지 許 아 天章閣 님을 허하샤 筆札 다시 區區 려 區區 장 區區 각을 열 區區 고 區區 필 區區 철을 느리 오 區區 샤 區區 구 區區 구 區區 히 區區 흥 區區 중은 區區 포를 區區 다 하라 區區 신
 즉 區區 스 區區 양 區區 치 區區 아 區區 니 區區 리 區區 이 區區 다

賈誼 陸贄 黃義炳

이 臣 때 臣 려 臣 지 臣 다 臣 스 臣 의 臣 글 臣 을 臣 천 臣 히 臣 상 臣 고 臣 하 臣 실 臣 식 臣 대 臣 동 臣 쇼 臣 이 臣 하 臣 야 臣 우 臣 렬 臣 이 臣 엽 臣 거 臣 늘 臣 려 臣 안 臣 이 臣 불 臣 열 臣 하 臣 시
 더 臣 니 臣 창 臣 곡 臣 의 臣 글 臣 을 臣 보 臣 시 臣 고 臣 대 臣 회 臣 왈 臣 이 臣 는 臣 한 臣 지 臣 가 臣 의 臣 오 臣 당 臣 지 臣 룩 臣 지 臣 라 臣 짐 臣 이 臣 오 臣 늘 臣 이 臣 야 臣 동 臣 량 臣 주 臣 셔
 을 臣 엿 臣 엿 臣 다 臣 하 臣 시 臣 고 臣 데 臣 일 臣 로 臣 썩 臣 아 臣 창 臣 명 臣 하 臣 라 臣 하 臣 시 臣 니 臣 창 臣 곡 臣 이 臣 답 臣 전 臣 에 臣 진 臣 복 臣 호 臣 대 臣 각 臣 조 臣 황 臣 의 臣 병 臣 이
 주 臣 왈 臣 창 臣 곡 臣 은 臣 년 臣 쇼 臣 쇼 臣 이 臣 라 臣 엿 臣 지 臣 경 臣 룬 臣 문 臣 조 臣 를 臣 지 臣 오 臣 리 臣 오 臣 답 臣 전 臣 에 臣 다 臣 시 臣 철 臣 보 臣 시 臣 를 臣 지 臣 어 臣 시 臣 험 臣 흠
 이 臣 가 臣 흠 臣 가 臣 하 臣 느 臣 이 臣 다 臣 언 臣 미 臣 필 臣 에 臣 또 臣 일 臣 위 臣 지 臣 상 臣 이 臣 출 臣 반 臣 주 臣 왈 臣 창 臣 곡 臣 은 臣 신 臣 진 臣 쇼 臣 년 臣 이 臣 라 臣 불 臣 식 臣 시 臣 무
 하 臣 고 臣 주 臣 어 臣 문 臣 조 臣 에 臣 망 臣 솔 臣 흠 臣 이 臣 만 臣 스 臣 오 臣 니 臣 그 臣 삭 臣 과 臣 하 臣 심 臣 이 臣 가 臣 흠 臣 가 臣 하 臣 느 臣 이 臣 다 臣 하 臣 니 臣 필 臣 경 臣 려 臣 지 臣 엿
 지 臣 하 臣 신 臣 고 臣 하 臣 회 臣 를 臣 보 臣 라

데칠회

윤 臣 상 臣 세 臣 동 臣 상 臣 에 臣 가 臣 랑 臣 을 臣 맛 臣 고
 양 臣 한 臣 림 臣 이 臣 강 臣 유 臣 에 臣 서 臣 선 臣 낭 臣 을 臣 맛 臣 나 臣 다

尹尙書東床迎佳婿
 楊翰林江州遇仙娘

盧均、盧杞

각 臣 설 臣 려 臣 지 臣 창 臣 곡 臣 의 臣 글 臣 을 臣 칭 臣 찬 臣 하 臣 시 臣 고 臣 데 臣 일 臣 로 臣 썩 臣 으 臣 시 臣 니 臣 일 臣 위 臣 지 臣 상 臣 이 臣 출 臣 반 臣 주 臣 왈 臣 념 臣 성 臣 인 臣 의 臣 말
 숨 臣 이 臣 요 臣 순 臣 지 臣 되 臣 아 臣 니 臣 어 臣 든 臣 인 臣 군 臣 씨 臣 배 臣 푸 臣 지 臣 말 臣 라 臣 하 臣 얹 臣 거 臣 늘 臣 이 臣 제 臣 창 臣 곡 臣 이 臣 패 臣 도 臣 를 臣 말 臣 하 臣 니 臣 그 臣 불
 가 臣 흠 臣 이 臣 하 臣 나 臣 이 臣 오 臣 흥 臣 범 臣 의 臣 위 臣 복 臣 을 臣 날 臣 거 臣 름 臣 은 臣 신 臣 하 臣 를 臣 경 臣 계 臣 흠 臣 이 臣 여 臣 늘 臣 창 臣 곡 臣 이 臣 그 臣 름 臣 군 臣 부 臣 를 臣 잔
 하 臣 니 臣 그 臣 불 臣 가 臣 흠 臣 이 臣 두 臣 가 臣 지 臣 라 臣 복 臣 원 臣 폐 臣 하 臣 는 臣 창 臣 곡 臣 의 臣 과 臣 명 臣 을 臣 삭 臣 하 臣 샤 臣 스 臣 방 臣 선 臣 비 臣 로 臣 고 臣 군 臣 지 臣 스 臣 를
 삼 臣 가 臣 개 臣 하 臣 쇼 臣 셔 臣 모 臣 다 臣 보 臣 니 臣 참 臣 지 臣 정 臣 스 臣 로 臣 균 臣 이 臣 라 臣 로 臣 균 臣 은 臣 당 臣 나 臣 라 臣 로 臣 기 臣 휘 臣 나 臣 성 臣 품 臣 이 臣 교 臣 사 臣 하
 야 臣 총 臣 명 臣 지 臣 국 臣 이 臣 죽 臣 히 臣 인 臣 주 臣 를 臣 아 臣 당 臣 하 臣 고 臣 언 臣 론 臣 풍 臣 치 臣 능 臣 히 臣 조 臣 덩 臣 을 臣 겸 臣 억 臣 하 臣 니 臣 쇼 臣 인 臣 을 臣 천 臣 히 臣 하 臣 고

王勃 寇準

董仲舒 賈誼 魏公 魏徵 魏長 魏微 魏珍 魏蕃 魏花 魏雲 魏吐 魏蕃

紫禁城

군자를 시고야야 요권을 타란 할지오래나 년고하고 소를 아는 고로던져 재로 즉 위하
 샤 선조로 신으로 례디 할시더니 이날 창곡의 문장 경륜의 절인 흠과던져 의 칭찬을 심을
 보고 심중에 불평 할야 이 못치 알됨이라던져 드르시고 불열 할시더니 또 일위 지상이 주
 할야 묘무지국이 요명을 놀내오니 저고로 지학문장이 년치다 쇼에 잇지아 님이라 각로
 의 말슴이 심분은 당치 못함오며 폐해이 제다 스를 디 할샤 시무를 무르시나 디 답함이가
 각 뜻을 말 할 것이오 또 할치 국지 되고금이 부동함나 엇지 경권의 참작 함이 업스리오이
 제 참지 정사로 군의 고집 할 말슴이 창곡을 필 박 할야 출신지 초에 에기를 썩그니 선비를
 장 발함는 도리 아니오 경술을 윤식 할야 언로를 막고져 함나 심분공평 할의론이 아니라
 신은 쓰 할되 창곡의 문장은 동중서가의 로 당치 못 할배오 한 위공부 필에 양 두치아 님 것
 이오 창곡의 지언과 극간이 급 장유위 정의 품치 잇스오니 하늘이 량필로 폐하 썩드림인
 가 함는 이다 좌위 그 지상을 보니 부마도 위진 왕화진이라 기국공신화운의 증손이니 년
 기이 십에 문위 쌓전함고 풍류 호방 할야 황상의 미서로 두 번을 평당함고 진왕을 봉 할야
 더니 맛춤와 입쇼 할야 다 가 창곡을 할 번 봄에 타 일 할인 지임을 알고로 군의 협잡함을 통
 할 할이라로 군이 분 할야 다 돌을 마지아 함나 더니 창곡이 이에 기복 주 알쇼 신이로 무 할
 지함으로 의 램이 과 갑에 참예 함나 폐하의 인 친구 함시는 본의 아니라 또 할 신지 되야 스
 군지 초에 기군지 목을 듯고 주어 문즈에 삼가지 못 할야 대신의 론 박을 듯조오니 엇지 언

연이은 총을 탐 할야 렬우를 도라 보지아 나 리 잇가 복원 폐하는 신의 과명을 삭 할야 던 하
 선비로 할야 곰기군 지습을 징계 케 함쇼 서쳐 창곡의 나히 십륙 세라 말슴이 당당 할야
 대를 싸 리는 듯 궁중 상해 막 불대 경함고던져 희동 안 식 할샤 알 창곡이 비록 년천 함나 주
 더 함는 데 되로 스 속 유라도 당치 못 함리 로 다 즉시 흥포 옥 더와 쌍개 안마와 리원 법 악과
 처화 일지를 주시고 할림 학 스를 비 함샤 저 금성 데 일 방 갑 데 를 스 송 함시니 양 할림이 흥
 포 옥 더로 샤 은 함기를 못 침애 어구 마를 득고 일 쌍 보 개와 리원 법 악을 압 세우고 저 금성
 스 데 로 나 올 시 구 경 함는 재 길이 매 여 양 할림의 옥 모 영 풍과 영 화 부 귀 를 칭 찬 함는 소리
 우 되 못 더 라 문 전 에 니름 애 거 매 구름 고 당 상 에 오름 애 빈 덕이 만 좌 함 더 라 좌 위 보 함
 되 황 각 되 오 신 다 함거 늘 할림이 하 당 영 지 함야 레 필 좌 덩에 각 되 쇼 활 학 스의 쇼 년 공 명
 이 일 세 에 진 동 함나 미 구 에 로 부 지 위 에 니를 지 라 국 가 의 득 인 함 신 것 봄 이 가 이 업 도 다
 로 뷔 탑 전 에 서 실 착 함이 만 흐 나 이 는 학 스 의 지 조 를 빚 냄 이 니 로 부 의 혼 모 함을 허 물 치
 말 라 할 림 이 손 샤 함 더 라 의 일 할 림 이 선 진 문 하 에 회 샤 할 식 문 저 황 각 로 부 중 에 니 르 니
 각 되 혼 연 관 더 함야 말 이 미 미 함 더 니 홀 연 주 찬 을 나 아 술 이 수 비 에 미 쳐 각 되 좌 석 을 음
 겨 할 림 의 손 을 잡아 왈 로 뷔 홀 말 이 잇 스 니 학 스 의 뜻 이 엇 더 함 뇨 로 뷔 로 리 에 홀 들 이 잇
 스 니 죽 히 군 자 의 짝 이 될 지 라 학 식 아 즉 미 취 함을 아 는 니 진 진 지 의 를 미 짐 이 엇 더 함 뇨
 한 림 이 이 말 을 듯 고 심 중 에 생각 함 되 황 각 로 는 램 권 락 세 함는 지 상 이 라 내 미 타 홀 배 오
 또 흥 이 윤 쇼 셔 를 천 거 함 나 그 조 감 이 그 르 지 아 님 뿐 아 니 라 내 춤 아 사 림 이 업 슴 으 로 그

말을져브리리오호고디왈시성이우호로부모계시니엇지고치아니코결단호리잇고
 각되왈로취아느니다만학스의의향이엇더호지알고져함이라브라건대일언을앗기
 지말라한림이정식디왈혼인은인륜대시라쇼지엇지천단호리잇고각되무연부담호
 더라한림이도라올식근거리애나오니갈도소리나며일위지상이나오거늘조세보
 니로균이라한림을보고수리를잡고샤례왈내학스를찾고져호더니로중에서맛났도
 다내집이며지아니호니잠간감이엇더호요한림이부득이싸라가니참정이딩좌호고
 쇼왈내일죽형을탄박함이잇스니일시소견이부동함이라형은심노치말라한림왈창
 곡은후진쇼년이러마르치심을엇지노호리오참정이쇼왈문희연의구혼함은넛풍과
 라내엇지드름애형이아죽미취호다호니과연그러호나한림왈연호니이다참정왈데
 에게호누의잇서범절이눔에게뒤지니아닐지니형으로더부러남미지의를미즘이엇
 더호요한림이괴로이녀여디왈이느부모의명호실배라창곡의주장호일이아니오내
 일죽듯조옴애의호곳이계신가호느이다참정이한림의헛락함을보고다시말이업
 스니대개로균이당일한림을샅과코져호다가뜻못호애누의를가져미인계를삼
 아전화위복코져호더니못될줄알고양양함이더호더라한림이도라와싱각호되로황
 량개구혼함이급호니만일지완호죽계괴싱길지라내맛당히윤상셔를보고의향을담
 지호후집에도라가뱃비윤쇼셔에게성호호리라즉시윤부에가명첩을드리니윤상셔
 마져좌딩호고쇼왈학시로부틀괴역호쇼나한림이미쇼디왈시성이시인량적으로일

죽압강녕에서존안을뵈온듯호오니엇지닛조오리잇고상제혼연쇼왈학스의얼골이
 수월지간에엄연장대호야거의물나불듯호니맛당히실가의락이잇슬지라뒤집과딩
 혼호요한림왈시성이집이집이한미호와아죽딩혼치못호니이다상제침음호가와학식
 리측호지오래니어느때근헝코져호느요한림왈쇼딩에슈유호고즉시가라호느이다
 상제다시침음을학스의근헝호는날귀부에나아가작별호리라한림이그의호호뜻이
 잇슴을짐작호고도라와상쇼호야근헝함을청호니상이답전에인견호시고하교왈집
 이경을새로엇어오래좌우에셔남이창연호나경의부모의의려지정을위로코져호야
 수월말의를허호느니량천을뱃드러셀니경데로올나오라다시하교호샤창곡부양현
 을레부원의랑을비호야본군으로거마를주어치송호라호시니이느특별이호신은던
 이라제우의웅숭함을알나라익일청신에윤상제한림을작별호고져왔더니황각되호
 니르러쥬용치못함을보고상제침음량구에몸을니러왈학스는원로에헝리를보중호
 라환데호는날다시와보리라호더라황각되호또번잡호말로반향에가니라명일한림이
 괴구를갓초아동조를다리고등정호식지내느곳마다덤인들이마르쳐왈수월전초초
 단복으로지내가든슈저금일이긋쳐부귀호니인간궁달을엇지알니오호더라한림이
 길을지축호야십여일만에일쳐에니르니동지고왈저로간족소주로가고오십여리
 를돈죽항류를거쳐가느이다한림이추연왈내일죽부거호제항주로왔스니엇지넛길
 을니조리오항류로가게호라동지한림의뜻을알고헝함에점점산천이명려호고인물

李夫人

이번화야야멀니브라보니물은물과청슈흔외씨리셔호전당의가려흔물식을알니라
로방에쇼딩이잇거늘즈세보니연로딩이라이운버들은우설이비비하야넛빛을씨엿
스니한림이비록장부의범범흔모음이나엇지쇼흔단장차아나리오현연흔눈물을스
스로억제하고항쥬성의에스쳐를딩흔후고등을디하야즈연쳐창흔흥금을딩쳐못하
야왈내전일부거홀제이곳의덤에서셔천슈저를맞나량쇼명월을운치잇게보냈더니
금일무료흔심회를취라셔위로하리오홍이만일일분정령이잇슨즉비록몽중이라도
리부인의진면을나타내야고인의경경흔심스를싱각하리라하교버거를의지하야잠
을일우고저하더니본부즈시기악과비쥬를가지고나와첩디하거늘한림이스양하교
일기로기를두어쇼견홀서로기쥬비를밭들고일곡노래를알외니가가에왈

夕陽芳草淒淒 碧桃花 十里錢塘
석양방초쳐쳐홀길에반갑도다벽도화야십리천당에연마는뜻은보지못하도다나
도강남의도라가논손이니연분이엮음인가하노라

한림이노래에흥치업더니이글을드름애즈괴의지은바홍의붓체에쓰글이라일변반
기며초창문왈이노래는취지은바뇨로기쥬연탄왈이노고기홍랑의소전이라홍이지
죄놓하평성지괴업더니지나가논슈저를맞나이노래를슈창하다하이다한림이더
욱초창하야괴식을감초지못하니로기의심하더라이오계성이악악하교두병이기
우러호식을저축하니한림이동즈를명하야향화지축과쥬과를갓초와전당호물가에

니르니강촌이적막하고성월이쇼슬흔디새벽안기물낮에들녘거늘한림이천이일주
향을살아홍에게제하니그제문에왈

某年某日 翰林學士楊昌曲 天恩 錦衣還鄉 錢塘湖 一杯酒
모년모일에한림학사양창곡이던은을넘어금의환향홀서전당호에니르러일비쥬

를들어홍랑의흔을불너왈오호홍랑아금일내간장이덜석又흔을알니르다내춤아
杭州 紅娘 嗚呼紅娘 今曰 肝腸 鐵石 滾滾 晝夜東

항쥬길을다시오며셔호풍경을다시디하리오더곤흔물결이쥬야동으로흔너어
向 悠悠 西湖風景 對 滾滾 晝夜東

디로향하노쇼유유흔내싱각이물을씨라가이업도다욱又흔씨를강중에거두지못
魂 江上 班竹 蕭瑟 西峰 酒杯

흄이여섯다운흔이강상에놀니르다반죽에쇼슬흔바람이닐미여웃깃을불어알음
嗚呼紅娘 平生 知己 西峰 酒杯

이잇는듯하도다오호홍랑아평성에지괴업슴이여셔봉의지는들이쥬비에비최이
數行書 衷曲 西峰 酒杯

논도다눈물로수항셔를씀이여목이밋쳐충곡을다못하노라

한림이거기를못침애우름소리눈물을씨라것잡지못하니동즈와좌위불승오열하교
항쥬로기바야호로제다라감뤼흐르며달왈홍랑은가위스무여흔이로다하더라한림
이지전향축을거두어강중에디지고새로이심식초창하야망연이섯다가도라와힝장
을슈습홀서로를보며작별왈내힝중에가져온것이업서샤쇼은조로정을표하노라
로기스양왈첩이엇지를브라리잇고다만상공의지으신제문을엇어강남청루의아
름다운스적을삼을가하노이다한림이웃고허락하니라턴명에즉시등정하야쇼쥬씨

에니르러석일지나든익덤을차자실시덤인이던도히마저동즈를보고일변반기며일
 변놀나전일지나가든슈진줄씨듯고문후하거늘한림이쇼왈내표모의후의를오래갑
 지못하도다하교빅금으로주니덤인이과함을스양하더라다시길을지축하야수리를
 흥하더니큰고깃잇스니동제쇼왈더흥악흔고기적한을맛나흥즈를일은곳이라적한
 은어다가고금일탄탄대로이노하거늘한림이숭혀보니과연석일념은고기라슈목을
 버히고길을넓혀주덤이무수이싱겘스니한림이의아하더라츠시한림이경거패마로
 기구를쳐려전일초초단복으로건려를채쳐초전흥과다르고향산이점점갓가옴
 애망운하느정성이창금하야일죽등정하고늦게쉬더니일일은동제채직을드러그르
 쳐왈반갑도다옥련봉이여하거늘한림이이유히보다가눈을들어고향산식을반기며
 동즈를명하야몬저드러가량천씨고하라하니츠시쳐스부위비록은즈의등과흔희보
 를드렸스나귀근홀과약을모르더니그반기느모음을엇지다말하리오니외량인이죽
 장을집고식문을의지하야브라봄애하시오사홍포로치화를머리에셋고동구에하마
 하야번화흔과상과장대흔거동이엇지히데로알든창곡이리오반김이극하니집슈왈
 우리오십년에너를엇어양씨일막이부절함을두곳기고영화부귀의희기함을겨를치
 못하엿더니네이제립신양명하야엄연이쇼관의모양이되니이엇지브란바리오창곡
 이량친의손을밭들어고왈쇼지불효하와반년리축에존안이더욱최로하시니쇼석에
 의려하샤이우되음을알소이다다시런은이망극하와관작을더하시고수이경데로모

이게하시느성지를말하고본현지위거마흥장을갓초와문전에티후하니원외부위흥
 장을슈습하야수일후등정홀식동리를리별하고황성으로오니라차설운상제당일한
 림을보고도와와부인소씨를티하야왈내니을위하야가셔를구하나합의흔재업더
 니신방장원양창곡이후진중데일인물이나다만그집이청고흔선비라내집과결흔흥
 을과필치못하니양가일흥이상경함을기드려가신흔미과를안으로몬저보내여그의
 향을담지함이쇼할가하노라소부인왈근간미패죽히밧을재업스오니제유모설패비
 록용렬하나변식적으니맛당이양가의입성함을기드려설과를보내여불가하느이다
 상제덤두하더라이때련옥이마춤외에섯다가상셔부부의슈작을듯고양창곡이공
 즈의일홍임을심중에과이하야성각하되공지만일쇼저와비필이되면홍랑의흔이라
 도신과하야하려니와그평성고심을알재업스니내엇지쇼저씩흔번설과치아나리오
 다만발설홀과희업더니흔게교를싱각하고츠야에쇼저침실에축불을도도느레하고
 전일희중에품엇든양공즈의편지를상전에싸치고나가나쇼제집어보고고히녀여옥
 을볼너문왈이조희네희중에서떠러진것이니그무슴조희노옥이거짓놀나느레하야
 왈이느고주홍랑의필적이로소이다쇼제정식왈내너로더브러모음을속임이업거늘
 네내게은휘함이잇스니엇지서로밧느것이리오옥이이에합루왈쇼제가又치무르시
 니천비엇지심곡을과망하리오고주홍랑의지개놓힘은쇼저의알으시느바라범부에
 허신희뜻이업더니외여람양공즈를맛나압강당에서흔번보고빅년지약을금셔又

치미졌다니 조물이 저희야 유유만시 일장춘몽이 되니 홍량의 원흥은 날으지 말고
 천비바라든 배또 혼근어 지니 구구호음 이 일장서간으로 신적을 삼아 양공조와 로쥬
 지연을 일 위홍량에게 못잡든은 덕을 양공조씩 갑스와 고쥬의 령혼으로 스싱에 의심되
 지아 남을 알게 할가 흠이로 소이다 언필에 오열함루하니 쇼제 그 뜻을 축연이 녀이라
 옥이 눈물을 거두고 축하에 미미히 웃거늘 쇼제 문왈 웃는 뜻은 무슴곡절인고 옥이 더두
 부답하거늘 쇼제 쇼왈 정히 심심하니 아모말이나은 회말고 파적게하라 옥이 다시 쇼저
 의논치를 숨히며 쇼왈 천비아사로우부인 침실에 갓습더니로 상공이 부인과 쇼저의 혼스
 를 의논하실시의 향이 양한림씩계시니 양한림은 즉 양공조라 언미필에 쇼제 얼골이 붉
 어지며 옥을 꾸지저왈 요망한 것이 아모말이나엇듯기를 잘하는도다 옥이 축하에 도라
 안즈며 왈 천비웃기는 심중에 소회잇슴이라 쇼제 이제 강박히 무르시고 도로 허척하시
 니 천비 다시는 기구아니리이다 쇼제 쇼왈 네소회는 무엇인고 옥이 초연부답하거늘 쇼
 제 쇼왈 내다시척지아닐지니 소회를 말하라 옥이 고쳐함루왈 금일 양한림은 석일 양공
 조오양공조는 홍량의 지과라 홍이 일즉공조를 퇴하야 쇼저의 현속하심을 천거하니공
 조덤두 허락함을 천비 천히드렸더니이제 쇼제 만일 혼스를 양한림씩덩하신즉 천비의
 스스로서이깃분바오나다만 홍량의고심혈성을 알니 업스오니 불상치아니리잇가 쇼제
 득득부답이러라 츠시양가 일히이 황성에니 르니 보는 재쳐스부부의 다복함을 흠선치
 아니리엿더라 양원의 권하에 사은 흠애던지언견하사왈 경이 비록물외에고상하니정

력이 불쇠하얏스니 환로에나와 정스를 도으라 원외돈슈주왈 신이 국가에 공퇴업시 관
 작을모르헿와 망극하신은 총을도보하을싸이업스오니 복원폐하는신의 벼슬을거두
 샤소찬하느 붓그림이업게하쇼서던지 쇼왈 경이 국가를 위하야 동량지신을나아 밋치
 니엇지공퇴업다하리오 신병을도섭하야 짐의향하느모음을저브리말라 원외황
 공퇴출하야 제삼상소하야 벼슬을갈고 후원별당에금서로쇼견하더라 한림이랑천을
 시좌하엿더니 허부인이 원외를도라보아왈은지나히임의십륙세오거관하엿스니성
 혼흠이급흔지라엇지코저하시느뇨 원외 밋쳐답지못하야 한림이 피척되왈 쇼지불초
 하와 밋쳐고치못하얏스오나덩흔 뜻이잇는이다하고 부거하느길에도적을맛나압강
 덩에갓든말과강남홍을맛나지고허심하고윤쇼저를천거하니 홍의조감이절인하야
 반다시그르지아님을일일히고하고또황각로의구흔흠을말슴하니 원외와부인이차
 탄왈이느던덩연분이나윤상셔느망중흔지상이라엇지한미흔잔반의집과결혼코저
 하리오한림왈 쇼제윤상셔를봄애충후장자라시속지상이아니니한미흠을구애치아
 닐가하느이다 원외덤두하거늘 허부인이 다시추연왈 사름의고심혈성을일우지못흔
 즉감상화괴하리니 만일윤부에성흔즉홍의일이더욱참혹하도다하더라 샤설소부
 인이양가일히이입성흠을듣고설파를보내야 혼스를담지코저하야 설파를볼너닐너
 왈 남이양부에가느히중미의슈단을부려의향을담득할소나설파왈로신이세상을철
 십년을겨것스니혈마늬의논치를모로릿가련옥이쇼왈파패엇지논치를보라하느뇨

설패왈제인이반가온말은눈으로듯고피로온말은코로디답하느니내어두운눈을씻고놈의큰눈을흔변본즉귀신갓치짐작하리라모다대쇼하더라소부인이또다르쳐왈시속디패말이수다하야취졸을내느니낭은양부에가윤부에잇는데말고다만괴석만담지하라설패고기를쓰덕이며왈만일어디잇슴을무른즉엇지하리오련옥이쇼왈디답기어려운말을못거든귀먹은데하라모다대쇼하더라소부인이우왈이러흔일은약간변치잇서야하느니파느너모고지식이말라패머리를흔들며왈바른말하야되되는바이업느니런성을엇지곳치리오하고망망이가라더니패우문왈이혼인이니혼인이니잇가소부인이부답하교옥이쇼왈양부에규취업고윤부에낭지업스니파파는싱각하야보라패량구에황연대각하야가니소부인이련옥을눈주어싸라가만일설조흠이잇거든쳐우치라련옥이양부일히환가후가보고저하더니응명하야싸라양부에니르니부인이문왈낭은어디서와느뇨패왈로신은윤부에잇지안코지나가느니파로소이다옥이넙해서눈치왈윤부는다시닐것지말라설패덤두왈내임의윤부에아니잇노라하얏노라옥이우음을춤하야도라서거늘허부인왈더히느넌고옥이설파의취졸을넘려하야디왈쇼녀는로낭의딸이니이다부인이문왈로낭은미파라하느니누구를위하야중미코저와느뇨설패침음량구에왈시속디패말이수다하나로신은실상으로그하느이다지금병부상셔윤공이쇼교잇서귀부에결혼코저하야로신을보내어윤부에잇노라말라하느나로신이싱각흠애혼인은인륜대스라그되고아니됨이윤부에

孟光 諸葛夫人

달나지아니하얏스오니은휘하야무엇하리잇고로신은이에쇼저의유모읍고더히는쇼저의종련옥이로소이다로신의말이다진정이오니의심치말으시읍쇼셔우리쇼저는너중군조오당제일인이라문장녀공에막힐바업스나뫼광의절구들힘이부족하교제갈부인의황발흑면이아니오니성혼후일분들님이잇거든로신을발설디옥으로보내쇼셔양부좌위막불대쇼하느허부인이그충직흠을괴득히녀여왈로낭은진짓슈단잇는미파로다다만내집이한미하교윤상셔는송품저상이라무엇을취하야결혼하리오패쇼왈혼인은가품과랑지를보나니부인을뵈오니우리쇼제착훈구고를맛는가하느니무슴다른취흠이잇스리잇고부인이비쥬로써설파를디절왈성혼후삼비쥬를먹이리라패락락하교하직흠시양한림이외당으로드러오다가련옥을보고왈네엇지여괴와느뇨옥이고기를숙이고허부인이은곡절을말하느니한림이미쇼하더라설패도라와소부인을보고대담왈범상훈미패발금치를달니고슌설을허비하느니일이슌성치못하거늘로신은흔변감애대셔의하느니슈단을보쇼셔련옥이웃고설파의거동을말하느니패우어왈우리쇼저의빅년가괴를엇지간사흔거짓말로하리오쇼제무심이모부인침실에니르니설패내다라손을잡고짓거려왈일이슌성흠은우리쇼저의다복흠이라쇼제무슴말인지모르고손을썩르쳐왈로낭은추솔이구지말라설패쇼왈금일비룩추솔하느나타일군조를마져빅년히로하교다즈안락홀제로신의말이즈미잇슴을알나로다쇼제바야흐로셔드고붓그림을이괴지못하느설패쇼저를보고쇼왈양한림을잠

간봄애눈이가늘고얼골이고으니반드시호식할지라쇼셔는조심쇼셔허부인을보
 니부드림고공순하니타일사다라온구피아니되시리라옥알파파는눈어둡다호더니
 관형찰식을더다지호노패옥을눈홀겨보며왈그장슈상호바는양한림이옥을미우정
 신드러보니타일옥을다려가지말으쇼셔쇼제그말을듯고할쇼호며표연이즈고침소
 로도라가니라익일윤상제양부에너르러레필좌정에상제왈선성의고명을앙모호지
 오래나로신이명리에종적이분요호와겸가옥슈에게분이업섯스니이제맛나음이느
 지아나리잇고원의답왈만성은초야종적이오미록성정이라련은이망극호샤즈식의
 늻은은턱을아비에게밋치시니도보홀싸이업스나신병으로벼슬을스면호고어린즈
 식이쇼반에출입하니구구우려함이쥬쇼근절호지라브라건대합하는일마다교훈호
 야주쇼셔윤상제쇼왈한림은국가동량이오쥬상의지인호심과조정의영호함이극호
 니쇼성의용렬함으로일두디를스양호려든그첼바잇스리오호더라원의는상셔의
 총후지풍을공경호고상셔는원의의청고지조를탄복호야일면여구하니상제종용문
 왈영랑의년과장성하니실가지락이급할지라데에게호설이잇스니규범니축에레절
 이몽미하니정구건졸의유순함은족하니내부의스랑호는모음으로귀문에결호코져
 뜻이근절하니아지못게라형의뜻이엇더호노원의렴임샤왈한문돈견으로영의를허
 호호서니이느만성의복이라엇지다른말이잇스오리잇가미거호즈식이거관호고나
 히십륙제라성례함이급호오니속히턱일함을브라느이다상제대회허락호고고산류

슈의아담호흥금과도라송빅의정중호정의를범하니미호담쇼와은근호모음이씨
 날뜻이업더니문득황각되오신다호니상제도라가고원의하당영지호야레필에각되
 왈로위령랑에게호설을통호야령랑의의향을알앗스나대인씩고치못함을즈져호더
 니다행이선성이경데로니르시니로부의집이비록부귀치못호나빈한치아니호고여
 의위인이비홈이업스나용모범절이추호지아니호니거의문당호되라다른말슴이
 업솔듯호니어느때로성례코져호시느노원의는본디물외고식라성정이쥬직호고청
 개호야황각로의시속티도와비루호언식맛당치못호고임의윤상셔외되호지라렴
 임기용왈상공의쇼교로한미호문호에결호호코져호심은감사호오되즈식의호스름임
 의병부상셔윤형문과와딩호앗스오니듯즈음이느짐을호호느이다각되미라호고식
 이잇서왈로위임의령랑과성언호앗스니엇지느짐을말호리오원의의그말을듯고위협
 함을알고정식왈천식이불초호야아비게불고호고대스를천단호니이느시성의교즈
 불민호되로소이다각되딩쇼왈선성의말이그르도다부지일테라엇지상의치아니호
 앳스리오스근지심상호일이라도식언함이불가호거늘호며인륜대셔리오로위임
 의심중에되딩호앗스니내설이규중에허로할지언딩타문에보내지아닐지니그리알
 라호고가니원의우을스름일니라윤상제도라와부인드려딩호함을말호고덕일호야
 위의를곳초아랑개성례호호시한림이호포옥디로윤부문전에던안호시쥬일호풍치와
 변화호용지를뛰아니칭찬호리오만당빈직은분분이가셔를치호호니상제함쇼호야